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는 유네스코가 2015년에 발간한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의 공식 번역서로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출판 유네스코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번역 이지향

감수 정두용

© 유네스코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유네스코 ISBN 978-92-3-000063-9



본 출판물은 Attribution-ShareAlike 3.0 IGO(CC-BY-SA 3.0 IGO) 라이선스(<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하의 Open Access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출판물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유네스코 Open Access Repository의 (<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의 이용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저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 (유네스코, 2015년 초판 발행)

해당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해당 국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에 포함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그래픽 디자인 유네스코

표지 사진 © Shutterstock / Arthimedes

인쇄·제작 톤앤톤(대한민국)

한국어판 발간사

소위 '포르 보고서(Faure Report)'로 불리는 유네스코의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계의 오늘과 내일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이 발표되었던 1972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고작 320달러였고 대학교 취학률은 약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약 40년 뒤인 2015년, 그 정신을 이어받은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가 출간된 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7,000달러 이상이었고 대학교 취학률은 93%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실로 경이로운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냈으며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투자는 그 토양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이 책의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의 한계는 예리하게 한국 교육의 비관적인 현실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교육 기회의 확대나 양질의 교육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청소년들은 극단적·말초적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인 문해력을 길러주는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음에도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고,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역시 한국 교육의 어두운 일면입니다. 시험 스트레스와 범람하는 학원은 학생들에게 즐겁지 않은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 체계를 보면 그동안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자가증식을 하는 데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 방향을 잃었다는 우려가 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을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 의제로서 우리 사회가 유네스코 교육 2030과 교육에 관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전 세계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그 근본이 되는 공동체적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새벽의 목소리로서 거듭 읽히고 인용되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혁신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열린 토론과 참여적인 과정 없이는 어떤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이 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 번역서를 독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이지향 박사가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위원 및 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두용 박사가 번역된 원고를 감수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의 김재홍 실장과 지선미, 김용욱, 송가영 전문관이 편집과 발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 책은 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활한 번역과 출간, 배포를 위해 협력해준 유네스코 파트너십·협력·연구과(Section of Partnerships, Cooperation and Research)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소비 타윌(Sobhi Tawil) 과장의 헌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본 번역서의 출간은 요원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동지적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 통계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 지표 중 당해년가격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및 World Bank 교육 지표 중 대학교취학을

발간사

21세기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사회 변혁의 동시대적 맥락에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학습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이 책에 담긴 생각들을 고안하는 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대표적 출판물인 ‘포르 보고서(Faure Report)’, 즉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계의 오늘과 내일(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1972)』과 ‘델로르 보고서(Delors Report)’, 즉 『학습: 내재된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1996)』의 비전을 이어받아, 우리는 교육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격변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열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연결되어 있지만 편협함과 갈등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새로운 권력의 중추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은 심화되고 지구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는 많지만, 그에 대한 도전의 길은 험하고 복잡합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와 경제가 원하는 역량을 배양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산술 능력을 넘어 더 큰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 및 전지구적 연대를 배우기 위한 학습환경과 새로운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압박받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존중과 평등, 인간존엄성에 입각한 문화적 문해력을 포괄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및 환경적 측면이 하나로 엮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을 필수적인 공동재(common good)로 바라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비전(humanist vision)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70년 전에 합의한 유네스코 헌장에 담겨 있는 영감을 새롭게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위한 열쇠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양질의 기초교육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평생 이어지는 학습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있어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밝히기 위해 다시금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과 학습의 적절성, 아동·청년 및 성인이 실제로 학습하는 것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형식교육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소녀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학생들이 중등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교육을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인 교사와 교육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 공동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인권과 인간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한 권리와 사회정의, 문화다양성의 존중, 국제 연대와 공동책임의 바탕 위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혁의 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토론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포부와 영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감사의 말

국제교육·개발 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지구적 프레임워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 책이 발간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취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나누었던 논의들이 발전된 결과입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전지구적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들로르 보고서를 되짚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유네스코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기술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넘어서 국제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코바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을 다시 돌아보기 위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Senior Experts' Group)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학습을 조직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거나 교육 비전에 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추려내어 간명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Post-2015 개발계획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겸 유엔 사무차장보와 W. 존 모건(W. John Morgan) 영국 노팅엄대학교 유네스코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그룹의 의장을 맡았으며, 이 외에도 피터 로날드 데수자(Peter Ronald DeSouza) 인도 뉴델리 개발도상사회연구소(CSDS) 교수, 조르지 하다드(Georges Haddad) 프랑스 파리1대학 팜테온-소르본 교수, 파디아 키완(Fadia Kiwan) 레바논 베이루트 세인트조셉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명예소장,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 국제교원노조연맹 사무총장, 테이치 사토(Teichi Sato)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교 교수, 실비아 슈멜케스(Sylvia Schmelkes) 멕시코 국립교육평가원 원장과 같은 인사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교육국(Education Sector)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연구·전망팀(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team)의 기획 하에 전문가 그룹은 2013년 2월, 2014년 2월과 12월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초고를 다듬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요한 공동작업에 참여하여 값진 기여를 한 고위급 전문가그룹의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은 외부전문가와 유네스코 직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네바대학교의 압델잘릴 아카리(Abdeljalil Akkari), 유네스코 국제교육연구소(IBE)의 마시모 아마디오(Massimo Amadio), 유네스코 정책·평생학습국의 데이비드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실뱅 오브리(Sylvain Aubry), 아랍연맹 교육문화과학기구의 네지브 아예드(Néjib Ayed), EFA 세계현황보고서의 아론 베나보트(Aaron Benavot), 홍콩대학교의 마크 브레이(Mark Bray), 유네스코 평생교육연구소의 안 칼슨(Arne Carlsen), 국제 교육연수정책 및 협력 네트워크의 미셸 카턴(Michel Carton), 유네스코 청소년·문화·기술개발과의 보헨 차크론(Borhene Chakroun), 홍콩대학교의 카이밍 쉹(Kai-ming Cheng),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마렌 엘퍼트(Maren Elfert), 베냉 국가교육위원회의 폴랭 J. 웅통지(Paulin J. Hountondji), 베를린자유대학교의 클라우스 후프너(Klaus Hüfner), 발전의결과 연구소의 루스 카기아(Ruth Kagia), 서울포스코경영연구원의 강태영, 아시아남태평양국제성인교육협회의 마리아 칸(Maria Khan), 스위스 개발협력기구의 발레리 리히티(Valérie Liechti),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의 캔디 루가스(Candy Lugas),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이안 맥퍼슨(Ian Macpherson), 유네스코 교육정책과의 롤라 무므네 베르크(Rolla Moumne Beulque), 유네스코 국제교육연구소의 르나토 오페르티(Renato Operetti), 유네스코 교육국 행정실의 스베인 오스바이트(Svein Osttveit), EFA 세계현황보고서의 데이비드 포스트(David Post), 유아교육·거버넌스 전문가 쉘던 셰퍼(Sheldon Shaeffer),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데니스 시놀로(Dennis Sinyolo), 프로네시스 연구소의 로자-마리아 토레스(Rosa-Maria Torres)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온 유네스코 교육연구-전망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조르지 하다드 전 국장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초고 작성 과정은 소비 타윌(Sobhi Tawil) 선임전문관이 주도하고 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대학교에서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타 로카텔리(Rita Locatelli) 교수와 루카 솔레진(Luca Solesin) 교수, 그리고 유네스코의 호응 레 투(Huong Le Thu) 전문관이 도움을 주었고, 마리 쿠그르(Marie Cougoureux), 지아웬 리(Jiawen Li), 조지아나 마치우카(Giorgiana Maciucă), 기예르모 니노 발데히타(Guillermo Nino Valdehita), 빅토르 누이(Victor Nouis), 메리언 푸트렐(Marion Poutrel), 엘렌 베뤼(Hélène Verrue), 산 인(Shan Yin)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치엔 탕(Qian Tang)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목차

한국어판 발간사	3
발간사	5
감사의 말	7
참고 목차	10
요약	11
들어가며	15
1. 지속가능발전: 가장 중요한 과제	21
도전적 과제와 다양한 긴장관계	22
새로운 지식지평	28
대안적 접근의 탐색	31
2.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확인	37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	39
보다 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보장	44
교육환경의 변혁	49
지식사회에서의 교육자 역할	56
3. 복잡한 세계에서의 교육 정책개발	59
교육과 고용 간의 커지는 격차	60
모바일 세계에서의 학습 인정 및 검증	64
다양하고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시민교육 돌아보기	67
교육 및 국가 정책개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69
4.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73
흔들리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교육’ 원칙	74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s)로서의 교육과 지식	79
미래를 위한 제언	85

참고 목차

1. 라틴아메리카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 이면의 소득불평등	25
2. 다양한 지식체계와의 조우	32
3.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발전에 대한 대안적 개념	33
4.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	34
5. 기초기술, 전용성기술, 직업기술	42
6.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45
7. 교육권을 박탈당한 소녀들의 목소리	46
8. 세네갈: ‘Case des Tout-Petits(유아를 위한 오두막)’ 사례	47
9. 멕시코의 문화간 대화	49
10. ‘벽에 뚫린 구멍’ 실험	51
11. 파키스탄 소녀들을 위한 모바일 문해 프로젝트	53
12. 전통적 고등교육을 넘어	54
13. 고도로 훈련되고 존경받는 핀란드 교사들	57
14. 청년 고용기회 확대	62
15. 방갈로르 및 하이데라바드로의 역(逆) 이주	65
16. 이집트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개인 교습	76
17. 교육받을 권리의 존중, 이행, 보호	77
18. 지식의 창출, 통제, 습득, 검증 및 활용	82

요약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과 모순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새로운 긴장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을 통해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 학습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 출간되었다. 사회변화를 주시하는 글로벌* 관측소(global observatory)로서 유네스코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화를 제안한다. 교육과 발전**에 대한 인본주의적 비전이 이 책에 영감을 주었으며, 인본주의적 비전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 평등한 권리 및 사회정의에 대한 존중,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연대와 공동책임과 같은 인류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책은 유네스코의 양대 대표 저작인 ‘포르 보고서(Faure Report)’, 즉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계의 오늘과 내일(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1972)』과 ‘델로르 보고서(Delors Report)’, 즉 『학습: 내재된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1996)』이 제시한 비전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가장 중요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이 제시하는 영감은 우리에게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난제와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로 인해 세계의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사회 내 관계에서 발견되거나 사회 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취약성, 불평등, 소외 및 폭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생산과 소비는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자연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인권에 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범의 이행과 보장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생활과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 특히 소녀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기술발전이 상호연결성을 향상시키고 교류·협

* 역주: 원문의 ‘global’은 ‘전자구(적)’으로 번역하였으며, 문맥에 따라 ‘세계(적)’, ‘글로벌’로 번역함. 또한 ‘globalization’은 ‘전자구화’로 번역함.

** 역주: 원문의 ‘development’는 기본적으로 ‘발전’으로 번역하되, 그 의미가 물질 자원의 활용에 국한된 경우나 국제개발협력 등과 같이 기존의 용례가 확고한 경우에는 ‘개발’로 번역함.

력·연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종교적 편협성과 정체성을 빌미로 한 정치불안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관이나 대안적 지식 체계를 섭렵함과 동시에, 신경과학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건

발전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교육이 일일이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은 새로운 발전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평화·포용·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 윤리·도덕적 원칙은 폭력, 편협성, 차별, 소외를 반대한다. 교육과 학습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인간 존재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협의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나 경제주의(economism)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여성과 소녀, 원주민, 장애인, 이주민, 노인, 분쟁 중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차별받기 쉬운 사람들도 모두 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어디에서나 학습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을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학습내용이나 폐да고지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하고, 교사나 기타 교육자들의 역할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신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서도 인본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잡한 세계에서의 지역적·전지구적 교육정책 개발

오늘날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이 한층 심화되면서 교육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전지구화가 확대되면서 저고용 성장과 청년 실업, 근무 안정성이나 여건이 취약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이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점차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인 동시에, 이제 교육과 사회발전 사이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학습자와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지식 및 기술 이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학습 인정·검증·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국가교육제도가 풀어야 하는 과제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양시키며, 책임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재정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공문제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교육 참여에 대한 발언권 요구가 국가적 차원과 전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의 다양화로 인해 ‘어떻게 하면 교육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행동을 조율하는 세 가지 기동인 사회·국가·시장 간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s)*로서의 교육과 지식 재맥락화

급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교육 거버넌스를 이끄는 규범적 원칙, 그 가운데에서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는 원칙에 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교육 담론은 흔히 교육을 인권이자 공공재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원칙은 기초교육의 경우 비교적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이나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비형식·무형식교육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 공공재의 원칙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결국, 교육의 목적을 논의할 때 핵심은 바로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정보, 이해, 기술, 가치, 태도 등으로 구성되는 지식이다.

저자들은 지식과 교육을 모두 **공동재(common goods)**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의 창출·습득·검증·활용은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collective societal endeavour)**의 일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동재의 개념은 공공재 개념에 깔려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경제사상의 영향을 넘어서게 한다. 즉, 공동재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의 참여적 과정을 강조하며, 또한 다양한 맥락, 안녕(well-being)의 개념, 지식 생태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식은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공동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점점 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교육과 지식은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s)**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지식과 교육이 전지구적 공동재라는 원칙은 인류 공동의 연대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교육이 전지구적 공동재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관측소이자 규범적 기능을 하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게도 해당된다. 즉, 유네스코 역시 교육이 전지구적 공동재라는 인식하에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 역주: 원문의 ‘public good(s)’는 민간에 대비되는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라는 뜻에서 ‘공공재(公共財)’로 번역하였으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common good(s)’는 공급자나 수요자, 민간과 공공에 관계없이 모두가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collective social endeavour)을 통해 공동으로 공급하고 공동으로 누려야 할 재화라는 의미에서 ‘공동재(共同財)’라고 번역함. 또한 ‘global common good(s)’는 공동재의 개념을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전 세계 모든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라는 의미에서 ‘전지구적 공동재(全地球的의 共同財)’라고 번역함. common good(s)를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선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이 책에서는 common good(s)를 주로 공공재, 사유재와 같은 경제학적 재화의 개념과 대비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게다가 공동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선이므로 큰 무리가 없는 한 공동재로 번역함.

미래를 위한 제언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의 일환으로서 학습목표에 맞게 학습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의 네 가지 기둥인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화가 점차 심화되고 정체성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그 간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네 기둥을 다시 강화하고 일신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달성’이라는 과제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세계관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교육정책이나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지구화는 어떠한 위협과 기회를 제시하는가? 교육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는 교사를 위한 교육·연수·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사유재(private good), 공공재, 전지구적 공동재 개념간의 구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서로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지적 기구이자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유네스코는 인류 공동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동시에, 모두의 동참을 위한 논의와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들어가며

“ 교육은 자신감을 길러준다. 자신감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평화를 가져온다.”

공자(551-479 BC), 중국 철학자

대화에 대한 요구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며, 사회변화를 주시하는 글로벌 관측소로서 유네스코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것은 곧 ‘대화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 평등한 권리 및 사회정의에 대한 존중,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연대와 공동책임과 같은 인류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부터 형성된 교육과 발전의 인본주의적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대화에 대한 요구는 열망과 영감을 불러넣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육관계자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유네스코의 양대 대표저작인 ‘포르 보고서(Faure Report)’, 즉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계의 오늘과 내일(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1972)』과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 즉 『학습: 내재된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1996)』의 제시한 비전을 계승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¹

미래를 위한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 분석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2년 포르 보고서는 전통적 교육제도가 흔들리던 시기에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두 가지 밀접한 개념을 수립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진보와 사회변화

1 다음 문헌을 변경: Morgan, W. J. and White, I. 2013. Looking backward to see ahead: The Faure and Delors report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Zeitschrift Weiterbildung*, No. 4, pp. 40-43.

가 가속화됨에 따라 초기 교육의 효과가 평생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학교는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지만 사회제도, 근무환경, 여가,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삶의 요소들이 학교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계발을 위해 학습할 권리와 그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평생교육이 교육정책의 중추여야 함을 강조하였다.²

한편, 1996년 들로르 보고서는 ‘일생에 걸친 학습’과 학습의 네 가지 기둥(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가’라는 물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1차적인 기능 외에도 총체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다.³ 들로르 보고서는 유네스코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지적 원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분석과 권고는 당시의 다른 교육개혁 보고서들보다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반면, 도구주의적인 성격이나 시장 중심적인 성격은 덜하였다.⁴

포르 보고서와 들로르 보고서는 전 세계 교육정책에 영감을 불어 넣었지만,⁵ 이제 우리는 1970년대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전지구적 맥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학습과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복잡성이 심화되며, 불확실성과 긴장관계가 증가하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새로이 부상하는 전지구적 학습 환경

오늘날 전 세계는 역설적인 상황들로 얽혀있다. 경제적 전지구화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빈곤이 줄어든 반면 저고용 성장, 청년 실업 및 근무 안정성이나 여건이 취약한 고용의 증가 또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체계는 불리한 조건의 학생들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부유

2 Medel-Añonuevo, C., Oshako, T. and Mauch, W. 2001. *Revisiting lifelong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3 Power, C. N. 1997. Learning: a means or an end? A look at the Delors Report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newal. *Prospects*, Vol. XXVII, No. 2, p.118.

4 Ibid.

5 Tawil, S. and Cougoureux, M. 2013. *Revisiting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 Assessing the influence of the 1996 Delors report*. Paris,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ERF Occasional Papers, No. 4; Elfert, M. 2015. UNESCO, the Faure report, the Delors report, and the political utopia of lifelong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0.1, pp. 88-100. 참조.

한 이들에게 독점적이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은 인구증가, 도시화와 결합하여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 본래의 특성에서 기인했든 아니면 대규모 이민이나 이동의 결과이든 간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종교적 우월주의가 횡행하고,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적 동원이나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테러리즘, 전쟁 및 내전, 마약과 관련한 폭력,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보면 ‘과연 교육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폭력과 갈등으로 인해 약 3,000만 명의 아동이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며, 이들은 미래에는 교육받지 못한 성인으로 자라남으로써 개발 정책으로부터도 소외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양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전지구적인 노력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문제에 대한 **발언권** 역시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 기타 디지털 미디어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적·시민적·정치적 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경, 직업, 학습공간을 넘나드는 노동자와 학습자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학습과 역량을 어떻게 인정하고, 검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며, 이는 학습에 있어 새로운 전지구적 환경이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교육정책이 모든 변화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변화들은 새로운 실천 뿐만 아니라 학습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인간 발전에 있어서 지식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식, 학습,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knowledge)은 학습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에 위치한다. 개인과 사회는 지식을 통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정보, 이해, 기술, 가치, 태도 역시 광의의 지식이라 볼 수 있다. 지식은 그것이 창조되고 재현되는 문화적·사회적·환경적·제도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⁶

6 European Science Foundation, 2011, *Responses to Environmental and Societal Challenges for our Unstable Earth (RESCUE). ESF Forward Look - ESF-COST 'Frontier of Science' joint initiative*. Strasbourg/Brussels, European Science Foundation/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 책에서 말하는 **학습(learning)**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과정(process)**인 동시에 그 과정의 **결과(results)**이며, 수단이자 목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실천이자 집단적 노력이다. 학습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다면적인 현실로서, 어떠한 지식이 습득되고, 습득된 지식이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능하는 기본 척도가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육(education)**은 계획적·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조직화된 학습을 의미한다.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및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일정 수준의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습은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도 제도적 틀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은 자기주도, 가족주도, 혹은 사회주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턴십과 같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그리고 지역공동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무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보다는 덜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

어떠한 지식이 습득되고,
습득된 지식이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능하는
기본 척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학습하는 것의 대부분은 의도적이거나 목적성을 띤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형식학습은 모든 사회화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는 의도적이고 조직화된 학습으로 제한하여 다룰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는 첫 번째 장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사회변혁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지식지평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나 갈등, 역설의 일부를 개괄한다. 동시에 다양한 세계관 및 지식체계,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루며, 인류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한다.

두 번째 장은 인본주의적 접근을 다시금 강조하며, 교육은 윤리적이며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즉, 교육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전지구적 교육환경 속에서는 무분별한 순응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7 Ibid.

세 번째 장에서는 교육정책 수립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는 형식교육과 고용 간의 간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 국경, 직업, 학습공간을 넘나드는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습을 어떻게 인정하고 검증할 것인지, 점점 더 전지구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인류보편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같은 논의를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교육과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의 복잡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교육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원칙, 특히 교육에 대한 권리와 교육이 공공재(public good)라는 원칙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즉, 지식에 대해, 그리고 그 지식의 창출, 접근, 습득, 검증, 활용에 대해 교육정책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언급하며, 특히 교육이 과연 공공재인지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학습목표와 학습조직 간의 조화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식을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s)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결론에서는 핵심개념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을 위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가장 중요한 과제

1. 지속가능발전: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는 우리가 인류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과 같은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 없이, 즉 나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 스페인 첼리스트 겸 지휘자

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은 지역적이거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취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이 때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정의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상호연결성이 강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지식지평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갈등·역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인간의 안녕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해야만 한다.

■ 도전적 과제와 다양한 긴장관계

들로르 보고서에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의한 수많은 긴장관계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곱 가지 긴장관계는 세계와 지역, 보편성과 특수성, 전통과 근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장기과제와 단기과제, 경쟁과 기회균등, 지식의 양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량은 그러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오늘날 사회변화를 이러한 일곱 가지 긴장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긴장관계의 등장으로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성장이 환경문제의 대두, 취약성과 불평등의 확대, 편협함과 폭력성의 증가를 동반하는 성장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 분야의 경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권관련 규범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과 규범의 격차가 존재한다.

환경문제의 대두,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생산과 소비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의 목적은 경제성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주류 개발모델의 근본적인 역설은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채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제한적인 성장과 지나친 자연개발로 기후가 변화하고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가난한 국가 국민들이다. 실제로 기후변화, 물과 같은 중요한 자연자원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이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세기 후반 세계인구가 약 3배, 즉 1950년 25억 명에서 2013년 70억 명으로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은 2배, 식량소비와 생산은 2.5배, 목재소비는 3배 증가했다. 세계인구는 2025년에 8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⁸ 이에 따라 식량수요는 2030년까지 적어도 35%, 물 수요는 40%,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2/3, 즉 60억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될 것이며,¹⁰ 그때까지 세계 도시인구의 80%가 남반구의 도시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된다.¹¹ 전 세계 도시인구의 증가로 중산층의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와 생산 형태가 변화하였고 이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며,¹² 이러한 격변은 전 세계의 삶, 생계 및 공중보건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도시화가 계획없이 혹은 부실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인간의 삶은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상호연결성이 강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지식지평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갈등·역설이
등장하였다.

8 UN DESA.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이러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에서 남반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66%에서 2010년 8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 세계 인구 대비 남반구의 인구는 2050년에는 86%, 2100년에는 88%를 차지하게 된다.

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Washington, D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10 UN DESA.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11 UN-HABITAT. 2013. *UN-HABITAT Global Activities Report 2013. Our presence and partnerships*. Nairobi, UN-HABITAT.

12 SPREAD Sustainable Lifestyle 2050. 2011. *Sustainable Lifestyle: Today's facts and Tomorrow's trends*. Amsterdam, SPREAD Sustainable Lifestyle 2050.

연재해 및 극한 기후에 점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화는 세계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환경적 동향을 주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21세기에 전 지구촌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¹³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적절하면서도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마련 및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인구성장과 도시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은 205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¹⁴ 이에 따라 다양화된 성인교육 및 연수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경우,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생산가능인구에 편입시키면 인구배당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배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¹⁵ 적절한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의 증가 이면의 취약성과 불평등

세계 빈곤율은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경제위 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신흥경제국가들이 탄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그 추세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계속되어 여러 지역에서 빈곤율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¹⁷

GDP(국내총생산)가 크게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이 목표수준까지 증가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인구는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전 세계 실업자의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실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동시에 일자리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고용의 약 절반 가량이 근무 안정성이나 여건이 취약한 상태의 고용이며, 이러한 취약고용으로 인해 빈곤선 이하 또는 빈곤선에 근접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

13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UN-Habitat, www.un-ngls.org/spip.php?page=article_fr_s&id_article=819 [2015년 2월 검색].

14 UN DESA,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15 Drummond, P., Thakoor, V. and Yu, S. 2014. *Africa Rising: Harnessing the Demographic Dividend*. IMF Working Paper 14/4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6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Washington, D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17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빈곤율은 2010년에 12.5%였던 반면, 남아시아는 30% 이상,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였다. IMF and World Bank, 2013.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 Rural-Urban Dynamic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 역주: 인구배당효과란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의미함.

다. 근무 안정성이나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 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기 어렵고 소득안정성이 훨씬 낮다.¹⁸

남반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북반구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취약고용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¹⁹ 우리는 지난 25년 간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 왔다.²⁰ 세계 부의 약 절반이 가장 부유한 1%에게, 나머지가 99%의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있으며,²¹ 이러한 소득불평등 심화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갈등, 정치불안, 폭력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 1. 라틴아메리카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 이면의 소득불평등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지난 10년 간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사회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전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다. 소득분배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는 주로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특히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토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는 보통 용자를 받거나 다른 지원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고,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 역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Inequality Matters. Report of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상호연결성 심화 이면의 편협함·폭력성 증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용가능한 정보와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 인류 연대의 측면에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

18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4. *Global Employment Trends 2014*.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 UN DESA. 2013. *Inequality matters.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20 World Economic Forum. 2014.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5*. Global Agenda Councils. pp. 8-10. 참조.

21 Oxfam. 2014. *Working for the Few: Political capture and economic inequality*. Oxfam Briefing Paper No. 178. Oxford, UK, Oxfam.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민족적·문화적·종교적 편협성이 심화되는 것 역시 볼 수 있다. 배타주의적 세계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며, 이는 범죄, 정치적 폭력,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무력충돌에 의한 정세불안 또는 강제이주 등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무장단체가 강간, 강제매춘 또는 인신매매를 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이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자행된다.²² 여성은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교육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²³ 이렇게 되면 여성의 가족과 아동의 보건환경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마약생산이나 인신매매 관련 범죄, 정치불안, 무력충돌 등의 폭력은 지속적으로 생명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²⁴ 전 세계에서 무려 5억 명이 불안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²⁵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 GDP의 11% 이상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2013년 GDP 총합의 두 배에 해당한다.²⁶ 또한 상당한 양의 국가예산이 안보, 군대에 투입되면서 개발에 쓰이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 군비지출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조 7,420억 달러에 이르렀고,²⁷ 많은 국가들이 GDP의 상당 부분을 교육보다는 군비에 투자하고 있다.

22 UN Women.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New York, UN Women.

23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11: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4 마약거래는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하지만, 그 마약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운반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다. 마약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약산업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마약조직이 영역을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마약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그다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린 소년들이 생산에 투입된다. 소년들은 마약 생산으로 얻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험한 일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마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이는 자연히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마약밀매는 강압·인신매매·성노예·납치 등의 범죄로 이어지며 개인의 안전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곳이 중앙아메리카 지역,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서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25 Global Peace Index and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4. *Global Peace Index 2014*.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6 Ibid.

27 SIPRI Database, 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2015년 2월 검색].

이 모든 것이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conflict-sensitive)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단순히 폭력, 정치불안을 야기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을 재생산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면, 교육정책은 보다 포용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에 대해 학습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폭력과 불안정이 횡행하는 시기에 인간 모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 전제조건으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 진전과 과제

보편적 인권은 인류 공동의 이상을 향한 집단적 열망으로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존엄성을 누리고, 최대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²⁸ 그러나 국제규범의 채택과 그 이행 간에는 간극이 있는 바, 이는 곧 정치와 성문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대변한다. 법과 정의구현을 향한 열망은 강력한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법의 지배를 통해, 나아가 사회·문화·윤리적 규범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차별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젠더(gender)이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확대 적용되고 1995년 베이징 국제회의의 실행프레임워크*의 이행노력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권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강화되었다. 여성도 어느 정도는 남성 만큼 쉽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경제·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²⁹ 최빈곤층 대다수는 여성이며,³⁰ 청년과 성인 문맹의 대다수가 여성이다.³¹ 게다가 여성은 전 세계 의회 의석의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³² 노동시장, 특히 무형식부문에서의 여성의 취약한 상황은 고용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고용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출발부터 불리하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보호가 없는 취약고용 상태에 처해 있는데,³³ 이는 기존에 급여나 경력으로 차별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새로운 차별이다.

28 인권의 보편성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유엔이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비준한 일련의 협약들로 구성된 세계인권헌장에도 명시되었다.

29 UN.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30 Ibid.

31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32 UN Women. 2011.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In Pursuit of Justice*. New York, UN Women.

33 ILO. 2012.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Geneva, ILO.

* 역주: 베이징 세계여성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를 의미함.

■ 새로운 지식지평

사이버 세계

오늘날 발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세계의 출현과 확장이다.³⁴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기 시작했다. 세계 인구 중 약 4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현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³⁵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남반구의 인터넷 보유가구 수는 현재 북반구를 넘어섰으며, 이제 전 세계 휴대전화 가입자의 70% 이상이 남반구에 있다.³⁶ 향후 20년 이내에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5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러나 여전히 국가와 지역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예를 들 수 있다. 속도가 제한적인 광대역(브로드밴드)과 낮은 인터넷 보급률은 지식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얻거나 상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변화하면서 공공부문 역시 변화하였다. 디지털 연결성이 강화되면 보건·교육·의사소통·여가·웰빙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³⁸ 인공지능의 발달, 3D프린터, 홀로그램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즉석 필사, 음성인식 및 동작인식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혜택들 중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활동을 일상 생활에서부터 국제관계, 일과 여가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사적·공적 생활의 여러 측면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달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시민적·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심각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와 보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장이 되는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변형시키는 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범죄, 테러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과용·남용·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 뿐만 아니라 기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³⁹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교육자는 기존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3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3.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Transnational aspects of regulation in a networked society*.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35 ITU. 2013. *The world in 2014: Fact and Figures*. Geneva, ITU.

36 ITU. 2014.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Special Edition. Fourth-generation regulation*. Geneva, ITU.

37 Schmidt, E. and Cohen, J. 2013. *The New Digital Age: Reshaping the Future of People, Nations and Business*. New York, Knopf.

38 Ibid.

39 Hart, A.D. and Hart Frejd, S. 2013. *The Digital Invasion: How Technology Is Shaping You and Your Relationships*. Ada, MI, Baker Books.

차원도 다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게 되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⁴⁰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중요하다.

신경과학의 발전

생물학적 프로세스와 학습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신경과학의 발전이 주목 받고 있다. 신경과학의 발전을 교육정책과 관련 짓는 것이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교수학습과정의 향상에 있어 신경과학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삶의 각 단계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언어습득의 효과는 어릴 때 최고조에 달한다고 밝혀진 것처럼 학습활동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s)’가 있음을 다루는 연구들은⁴¹ 초기교육이 중요하고, 어릴수록 여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다른 연구는, 두뇌의 ‘가소성(plasticity)’이라는 뇌의 능력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곧 두뇌가 환경에 반응하며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생학습이 중요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적절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또한 뇌기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수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환경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육체적, 지적 작용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성 뿐만 아니라 두뇌의 정서적·인지적·분석적·창조적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신경과학의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 선천성과 후천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이러한 이해가 확립되면 교육과 관련된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및 대체에너지

기후변화는 금세기의 중요한 과제로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해결하는 수단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을 줄이고, 단합된 노력을 통해 지구환경에 야기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하며, 기후변화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40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MCB University Press, Vol. 9, No. 5.

41 OECD 2007. *Understanding the brain: The birth of a learning science*. Paris, EDUCERF-OECD.

42 Ibid.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변해야 하는데, 바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⁴³

대체에너지로서 비탄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교육은 전 세계가 이러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탄소를 비탄소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신념과 인식을 바꾸고 에너지 사용방식을 전환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데,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만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

동시에 환경 적응에 있어서도 교육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환경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현실은 계속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은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술, 행동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교육 및 인식증진에 관한 리마장관선언(Lima Ministerial Declaration on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은 '각국 정부가 자신의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교육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국가발전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창의성, 문화적 혁신, 청년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이 증대되고 문화교류가 확산되면서 최근 새로운 문화와 예술 표현의 형태가 대두되었다. 주로 젊은 층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유의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대중문화가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서 음식, 음악,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15-24세의 청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이 유사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활동적이며, 상호연결성이 가장 높은 모바일 세대라고 한다.⁴⁴ 18-24세 청년의 90% 이상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결과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더 큰 이해의 장을 형성하고, 전 세계 미(美)적 문제들에 참여할 수

43 Lutz, W., Muttarak, R. and Striessnig, E. 2014. Universal education is key to enhanced climate adaptation. *Science*. 28 November 2014. Vol. 346, No. 6213. Education is key to climate adaptation. www.iiasa.ac.at/web/home/about/news/20141127-Science-Pop.html [2015년 2월 검색].

44 'Youth-support' by Chernor Bah, Chair, Youth Advocacy Group for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Panel discussions: 'Enabling conditions for the delivery of qualit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ere are we? Where do we want to g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nabling Conditions & Perspectives, 16 May 2014, UNESCO, Paris. 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ED/pdf/Chernor-Bah_16May2014.pdf [2015년 2월 검색].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다른 지식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은 더욱 큰 발명과 혁신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인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⁴⁵

■ 대안적 접근의 탐색

다원적 세계, 다양한 세계관

현재의 발전양상은 복잡성을 띠어가고 있기에 이를 직면하는 세계는 인간의 진보와 안녕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을 탐색해야 한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의력과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의 다양성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사회, 개인, 종교와 같은 삶의 근본적인 측면 역시 문화다양성을 통해 보

**우리는
보편적 가치들의 핵심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현실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 가치있게 된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들의 핵심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현실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접근법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기에, 보건·교육·소득에 관한 재래식 지표를 넘어서는 시각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의 안녕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은 그 특성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맥락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적 접근이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⁴⁶

45 UNESCO.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aris,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52/185202e.pdf> [2015년 2월 검색].

46 국제적으로 '안녕(well-being)'의 개념에 대해 공통된 합의는 없지만, 전통적인 혹은 재래적인 사회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근 소득, 보건 및 교육상태와 관련된 지표를 통합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더 나아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불평등과 젠더 문제가 증가하면서, 불평등이 반영된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IHDI), 젠더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 및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도 개발되었다. 또한 인간개발에 대한 매우 협소한 개념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적 척도를 모색하려는 노력들도 있다. 유엔대학교(UNU)가 제안한 포괄적 자산지수(Inclusive Wealth Index)가 한 예이다. 이외에도 OECD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상(Better Life Initiative), UNSEEA93의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 예일대학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Redefining Progress의 순수진전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s, GPI), OECD의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 Pearce, Atkinson & Hamilton의 진정한 저축(Genuine Saving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HCI), Cobb & Daly의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 일본정부의 순국가복지(Net National Welfare, NNW), EU와 영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 등 다양한 지표가 있다.

참고 2. 다양한 지식 체계와의 조우

유럽 문화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비록 유럽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유럽 문화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많지만, 유럽 문화는 기존에 인도가 갖고 있던 정신적 전통과 명확히 대비되면서 기존의 정형화된 타성에 젖어있던 인도인들의 지적 삶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부분은 서양 문화가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인도 사회에 침투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외국 교육이 우리 민족정신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진리를 새롭게 조합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에 저항하지 않되,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담이 아닌 자양분으로 소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도 인도 고유 문화의 모든 요소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출처: Tagore, R. 1996. The Centre of Indian Culture. Sisir Kumar Das (ed.), *The English Writings of Rabindranath Tagore, Vol. 2, Plays, Stories, Essays*. New Delhi, Sahitya Akademi, p. 486.

대안적 지식 체계와의 통합

우리는 주류 지식모델에 대한 대안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 지식 체계를 폄하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개방적인 태도로 다른 세계관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농촌사회, 특히 토착민사회

**대안적 지식 체계를
폄하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상당수의 원주민 문화에서는 지구를 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이 있다든지 하는 타당한 이유없이 지구 또는 지구가 생산한 것을 훼손할 수 없다. 많은 문화권에서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이자 자연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로,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된다. 또한 농촌사회에서는 시간을 선형적인 개념이 아닌 순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생산이나 계절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고, 공동체의 정신적 안녕을 증진하는 축제나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한 다르다. 어떤 사회는 구성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의사결정 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하는 반면, 또 다른 사회는 논쟁, 토론, 설득을 통한 전원합의(consensus)를 추구한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기꺼이 버리고 현실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세계관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아이메 세자르(Aimé Césaire), 라빈드라나스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와 같은 사상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형태의 지식을 우월한 것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특정 권력 체계에 특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교육과 발전의 미래를 위해 현실의 지식 체계를 통합하고 인류공동의 유산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관들 간의 대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남반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지역에서 ‘발전’은 케추아어로 ‘좋은 삶’(buen vivir 또는 good living)’을 뜻하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원주민 문화와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발전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안되었으며,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지구는 오늘날의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미래 세대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주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⁴⁷

참고 3.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발전에 대한 대안적 개념

수막 카우사이라는 개념은 에콰도르 안데스지역 케추아인들의 세계관에 그 뿌리가 있다. 스페인어로 ‘좋은 삶’을 뜻하는 수막 카우사이는 대략 ‘좋은 삶’ 혹은 ‘안녕’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공동체와 자연환경의 맥락에서 개인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조화로운 공동발전을 강조한다. 케추아의 토착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주류 발전모델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반영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조화로운 인간 및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 기반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막 카우사이는 최근 에콰도르 헌법 개정에도 영감을 주어 ‘다양성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좋은 삶의 방식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존, 수막 카우사이로 명시되었다. 이 헌법은 ‘지속가능성과 좋은 삶의 방식, 즉 수막 카우사이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생태계에서 살 권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생성과 생산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선조의 지혜를 발전시켜 좋은 삶의 방식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⁴⁸

47 M. K. Gandhi, 1960. *Trusteeship*. Compiled by Ravindra Kelekar. Ahmedabad, India, Jitendra T. Desai Navajivan Mudranalaya.

48 에콰도르 헌법 제14조 및 제387조 참조: 제14조 - Se reconoce el derecho de la población a vivir en un ambiente sano y ecológicamente equilibrado, que garantice la sostenibilidad y el buen vivir, sumak kawsay; Art. 387.- Será responsabilidad del Estado: [...] 2. Promover la generación y producción de conocimiento, fomentar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ecnológica, y potenciar los saberes ancestrales, para así contribuir a la realización del buen vivir, al sumak kawsay.

다양성의 세계와 새로운 교육 비전

결국 교육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은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려면 사회·환경·경제적 차원에서 인간 계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원들이 교육과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empowering education)은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희망하며,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창의적이며, 평화롭고 조화롭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평생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이러한 역량 계발을 보장한다면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원동력이며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교육은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비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기여해야만 한다.

참고 4.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

‘형식교육, 대중인식제고, 훈련 등을 포함한 교육은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환경과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제21 (Agenda 21), 제36장, 제3절. 1992.

2014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아이치·나고야 선언(2014 Aichi-Nagoya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각국 정부가 ‘교육, 연수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접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49 Power, C. 2015. *The Power of Education: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Globalisation and UNESCO*. London, Springer.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학습은 적응력을 길러주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 및 지역 사회가 지역적이며 전지구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초교육, 후속학습, 그리고 연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화된 학습은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하다. 실제로 교육은 사고방식과 세계관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얻게끔 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주체적 판단과 토론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변화를 만드는 핵심이다.

교육에 대한
공리주의적 시각은
인류의 안녕을 위한
다양한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재로서 교육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을 받을 권리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학습할 권리와 수요에 맞는 적절한 학습(relevant learning)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 수요는 전 세계 모든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학습은 각각의 문화, 각각의 인간이 존엄하게 존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삶의 질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 교육에 대한 공리주의적 시각은 인류의 안녕을 위한 다양한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통해 얻게 된 가치들은 전 인류 공동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며, 인본주의적 관점은 교육과 인류의 안녕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기반이 된다.

2.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확인



2.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확인

“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당신 안에 묶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있을 때만이 인간다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권리 활동가 겸 대주교

21세기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타인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 역량, 복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인본주의**(humanism)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본주의는 유네스코가 개념적·실천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다. 유네스코는 오래 전부터 인본주의를 강조해 왔는데, 1953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동서양의 인본주의와 교육(Humanism and Education in East and West)’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⁵⁰

인본주의 개념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적 해석에 있어서도 유구한 전통을 지닌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의 유력한 해석 중 하나가 인본주의를 무신론이나 세속적 합리주의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인류와 자연 간의 존재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현상론이나 실존주의로도 확장되었다. 한편, 인본주의를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유력한 시각인데,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의 인류의 업적은 인류와 자연, 우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이러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와 신(神) 중심적 인본주의에 비판을 제기한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스트, 일부 페미니스트, 생태학자,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 인본주의자 또는 포스트 인본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선택(biological selection)과 급진적인 강화(radical enhancement)를*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도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며, 이는 바로 교육이 다루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50 UNESCO Unity and Diversity of Cultures. 1953. *Humanism and Education in East and West: An international round-table discussion*. Paris, UNESCO.

* 역주: 생물학적으로 우성이 선택되고, 선택된 우성에 한정해 그러한 우성의 성질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임.

■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비전은 보편적 윤리원칙을 재조명한다. 보편적 윤리원칙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조직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근간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지식을 습득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과정을 설계할 때 중요하다. 인본주의적 접근은 경제발전에서 교육이 담당했던 공리주의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인본주의적 접근은 포괄성, 그리고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교육에 주안점을 둔다.* 인본주의적 접근은 전지구적 학습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을 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교사와 교육자들이다.

주류 개발 담론에 맞서기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윤리적·시민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경제적 기능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국제적 개발 담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자본의 시각과 절대적 공리주의의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⁵¹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에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전 과정에 있어서 윤리 원칙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면 오늘날의 주류 담론에 맞설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대안적인 발전관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의미있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의 역할에 주목한다.⁵²

견고한 윤리적·도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

사회·경제·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그리고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학습 환경에 따라, 그리고 삶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특정 관심사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을 조직함에 있어 평생학습을 원칙으로 고려할 때에는 사회·경제·문화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⁵³ 교육에 있어 인본주의적 접근은 **과학적 휴**

51 Post-2015 개발에 관한 '2013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 교육이 두 페이지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과 '생산적인 시간'의 형성에의 기여와 같은 인적 자본의 시각에서 표현되어 있다.

52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Random House; Sen, A. 1999.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53 교육과 관련된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증진'이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579SDGs%20Proposal.pdf> [2015년 2월 검색].

* 역주: 반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 다수에 속하지 못할 경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머니즘(scientific humanism)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인 줄리앙 헉슬리(Julian Huxley)가 제안했으며 1972년 포르 보고서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과학적 휴머니즘**(scientific

**21세기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타인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 역량, 복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humanism)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⁵⁴ 앞서 언급되었듯이 **인본주의**의 개념을 둘러싸고 다양한, 때로는 상반되는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해석들은 교육의 근본적 관심사인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21세기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타인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 역량, 복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⁵⁵ 교육의 근본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는 **생명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평등한 권리와 사회정의,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연대와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 책임**(respect for life

and human dignity, equal rights and social justice,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and a sense of human solidarity and shared responsibility for our common future)이다. 여기에는 마틴 버버(Martin Buber)⁵⁶와 파울로 프레이리(Paul Freire)⁵⁷가 주장한 바와 같이 대화법을 통한(dialogical) 학습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을 소외시키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학습 제도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인간성을 박탈하는 사회적 관습을 배격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치와 원칙을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본주의적 교육이 이처럼 확대될 때 교육은 변혁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 윤리적 토대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 주체적 판단, 문제해결능력, 정보 및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변혁적 태도를 계발하는 핵심이 된다. 1996년 들로르 보고서가 제시한 통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육법은 지속가능성이 전지구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한다. 지속가능발전 하에서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경제적·문화적·시민적·정신적 범주를 다루는 다차원적 교육에 대한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육과 학습은 인지·정서·윤리적 측면을 각각 따로 생각하던 전통적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 인지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 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특히 학교 교육의 주안점을 학습성과 측정에 두고 있

54 Huxley, J. 1946. *UNESCO: Its purpose and philosophy*. Paris, UNESCO Preparatory Commission; and, the recent reference to this in Haddad, G. and Aubin, J. P. 2013. Toward a humanism of knowledge, action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Vol. 59, No. 3, pp. 331-341.

55 *Diogenes*, August 2007, Nol. 54, No. 3, [http:// dio.sagepub.com/content/54/3.toc#content-block](http://dio.sagepub.com/content/54/3.toc#content-block) [2015년 2월 검색].

56 Morgan, W. J. and Guilherme, A. 2014. *Buber and Education: Dialogue as conflict resolution*. London, Routledge.

57 Roberts, P. 2000. *Education, Literacy, and Humanization: Exploring the work of Paulo Freire*. Westport, CT and London, Bergin and Garvey.

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학습영역을 넘어 사회 및 정서적 학습이나 문화 및 예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평가체계가 등장하고 있다.⁵⁸ 특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으로 감정적·사회적·윤리적 학습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학습을 초월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교육의 네 기둥에 대한 재해석과 보호

1996년 델로르 보고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중 하나는 **학습의 네 기둥**(four pillars of learning)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형식교육은 인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내용을 저해하는 특정 지식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조직하는 데 있어 네 기둥 모두에 고른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⁵⁹

-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더불어 세부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 직업 관련 기술 습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한 학습
-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 개인의 인성을 계발하고, 자율성·판단력·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한 학습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학습

학습의 네 가지 기둥에 반영된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정책 토론, 교사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예로는 이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발되고 채택된 스페인 바스크(Spanish Basque) 지역 기초교육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기둥은 이러한 통합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맥락과 시대에 대한 통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오늘날은 이 네 기둥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경우 인간 상호간의 사회·문화적 차원을 뛰어 넘어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공존을 담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학습의 네 기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인본주의적 비전을 지닌 교육의 네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정립하고 가치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8 International Learning Metrics Task Force.

59 Delors, J.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과 역량개발

현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학습의 네 기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과
더불어 사는 학습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오늘날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skill)**과 **역량(competencies)**의 개념은 다양하고, 종종 중첩되기도 하며, 개념을 분류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종종 기술과 역량이라는 용어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역량의 경우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서, 특정 맥락에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이해, 기술, 가치, 태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참고 5. 기초기술, 전용성기술, 직업기술

2012 EFA 세계현황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는 직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 즉, 젊은층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기술은 기초기술, 전용성기술, 직업기술로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맥락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초기술(Foundation skills):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술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들 수 있다. 기초기술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기술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기술은 전용성기술과 직업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기술이다.

전용성기술(Transferable skills):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일은 업무의 필요와 환경에 걸맞게 전용이 가능한 광범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문제의 분석 및 해결, 효과적 의사소통, 창의성과 리더십, 성실성, 기업가적 역량 등이 전용성기술에 해당한다. 전용성기술은 학교 밖에서도 기를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 훈련을 통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직업기술(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채소 재배법, 재봉틀 사용법, 벽돌 쌓는 법, 목공법, 컴퓨터 사용법 등에는 특정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직업기술은 중등교육이나 정규 기술직업교육과 연계된 실습, 또는 전통 도제식 훈련 및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훈련과 같은 직업기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출처: UNESCO. 2012. *Youth and Skills: Putting education to work.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Paris, UNESCO.

오늘날의 교육은 ‘소프트(soft) 스킬’, ‘전용성기술’, ‘비인지적 기술’, ‘21세기 기술’ 등에 중점을 두므로써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졌다. 여기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이고 목시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전제는 교육의 경제제 기능에 있어서 핵심이기는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의 경제적 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다차원적 인간 존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역량을 개발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이해·기술·가치와 같은 지식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역량을 통해 타인과 새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 교사,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탐구·연구·실험을 통하여 창출된다. 이는 기초적인 언어 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개발, 문제해결능력은 물론이고, 논리적 사고, 분석, 종합, 추론, 연역, 귀납, 가정과 같은 고차원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어쩌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능력’과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만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때는 없었다.

오늘날만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때는 없었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학습자가 매일 접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며,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식을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연결시키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⁶⁰

다시 생각하는 교육과정개발

정책 수립과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인본주의적인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일까?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의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질문이 더 많다.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문화적)헤게모니, 고정관념, 편견을 거부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간 교육을 기반으로, 다원주의와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체계는 광범위한 교육 목표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간의 연결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체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를 정의하기 위한 정책대화 과정이 참여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⁶¹ 나아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축인 사회·경제적 정의, 평등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 식에 따라야 한다.

60 Facer, K. 2011. *Learning Futures: Education, Technology and Social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61 Amadio, M., Operti, R., Tedesco, J.C. 2014. Curriculum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llenges, Tensions and Open Questions. *ERF Working Papers*, No. 9. Paris, UNESCO.

다음의 문헌 추가 참조: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UNESCO. 2013. The Curriculum Debate: Why It Is Important Today. *IBE Working Papers on Curriculum Issues* No. 10. Geneva, IBE UNESCO.

■ 보다 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보장

기초교육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불평등

2000년 이후 기초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진전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및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주도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취학을 향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 수 감소, 청소년 문해율 증가, 그리고 전지구적 취학을 및 성인 문해율에서의 성별 격차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 파트너들이 1990년에 공약한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기초학습 필요충족'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약 6,000만 명과 청소년 약 7,000만 명이 여전히 효과적인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7억 7,500만 명에 달하는 성인의 문해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불완전하고 수준 낮은 교육 탓에 기초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양질의 교육과 적절한 학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남아있다. 적어도 2억 5,000만 명의 아동이 최소 4년 이상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을 읽고 쓰거나 숫자를 셀 줄 모른다.⁶²

또한 국가 간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평균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 내 기초교육의 성과 및 성취 수준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불균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⁶³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 국가나 분쟁국가에서 두드러지는데, 젠더나 거주지역(시골)과 같이 교육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주요 요소들과, 소득수준·언어능력·소수자 지위·신체적 결함과 같은 장애요소가 결합하여 '불이익을 서로 강화'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⁶⁴

62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63 2014 무스카트 협약 참조. 5,700만 명의 아이들과 6,900만 명의 청소년이 여전히 효과적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성인이 7억 7,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64 UNESCO.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Paris, UNESCO.

참고 6.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많은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학교 출석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장애아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당연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4세 미만의 어린이 9,300만 명, 즉 세계 어린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중등도 또는 고도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저중소득 국가 15개국 중 14개국에서 장애가 있는 노동연령층이 초등학교를 마칠 확률은 약 1/3 정도 더 낮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장애인 30% - 비장애인 48%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잠비아의 경우는 장애인 43% - 비장애인 57%, 파라과이는 장애인 56% - 비장애인 72%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갈 기회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방글라데시, 부탄, 이라크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동이 학교에 갈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는 2006년에 장애가 없는 6-9세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은 10%에 불과했지만 청각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은 19%, 정신장애 고위험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은 51%에 달했다. 또한 태국에서는 장애가 없는 6-9세의 아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2005-2006년에 학교를 다녔지만, 걸거나 이동이 불편한 아이들 중 34%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

출처: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기초교육에서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

교육에서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전통적으로 수준별 형식교육에서 남녀 간 수적 균등(gender parity)과 동일시 되어 왔다. 젠더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나 교육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었고, 소녀와 여성들이 이 문제에서 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형식교육을 받는 소녀와 여성이 증가하면서, 2000년 이래 세계의 교육 양성평등과 관련한 수치 상의 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실제로 중부 및 동부 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북미 및 서유럽에서 초등교육을 받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가 균등해졌다. 또한 2000년 이후 특히 서남아시아에서도 교육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데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랍권에서는 그보다 진전이 미흡했다. 그러나 이처럼 괄목할 만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 밖 아동은 여전히 소녀들이며, 전지구적으로 낮은 문해 수준을 보인 청소년과 성인의 2/3 역시 여성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년과 남성도 양성불평등과의 투쟁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기초교육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 7. 교육권을 박탈당한 소녀들의 목소리

교육은 삶의 축복이며 필수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저 혼자가 아닌 많은 소녀들을 대표합니다.

저는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6,600만 명의 소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6,600만 명의 소녀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오슬로, 2014년 12월 10일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남녀 간 수적 균등(gender parity)

중등교육에서 남녀 간 수치를 균등하게 맞추려는 목표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북미와 서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달성되었다. 아랍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 미미하지만, 그 외 지역,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성별간 수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평균 취학률이 가장 낮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는 특히 중등학교에서 남녀 간 수적 차이가 분명하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여대생 비율이 여전히 낮고, 고등교육에서의 남녀간 수적 균등은 아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아랍국가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서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진 진전이 있었다. 중유럽, 동유럽, 카리브해, 북미, 태평양, 서유럽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중등학교 여학생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많은 지역에서 관찰되듯이 소년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교육 이수율 때문이다. 카리브해,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또 다른 문제이다.

잠재적 균형장치로서의 교육

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 균형을 달성할 수도 있다. 교육에 있어서 포용적인 과정은 형평한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영유아 교육: 미래의 학습과 삶의 기회를 고려하면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은 해당 영유아의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도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개발, 사회 통합 및 경제적 성공에도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 소수민족이나 소수언어 사용자라는 상황, 성차별, 고립, 장애, 폭력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양질의 조기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들이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⁶⁵ 한편, 메타 분석은 조기개입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이 나이를 먹으면 평균 성장 궤도와 지연 궤도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조기 개입으로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메우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폐증이나 아스퍼거증후군과 같이 특정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조기 개입하면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⁶⁶

참고 8. 세네갈: 'Case des Tout-Petits(유아를 위한 오두막)' 사례

세네갈 아동의 보건 및 사회적 지위는 열악하며, 당국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동 보호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세네갈 당국은 현재 영유아 보육을 발전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초기 아동 발달을 위한 새로운 모델인 '유아를 위한 오두막'은 2002년부터 형식비형식무형식의 다양한 취학 전 교육과 공존해 왔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있는 지역사회기반 모델이다.

'유아를 위한 오두막'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모델로서 생활양식, 존재방식과 사고방식을 보여주며, 아프리카의 중요한 가치에 헌신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오두막은 사회화 및 교육에 탁월한 공간으로서, 아동의 삶에 있어 학습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기본적으로 이 오두막은 취약한 농촌에 통합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며 세네갈 영유아 시설의 약 20%를 차지한다. 오두막은 육각형 구조로 아동 교육용 방과 부모 교육용 방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교육보건영양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무료는 아니지만 다른 영유아 형식교육 시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재정적 기여는 상징적인 수준이며 이러한 재정적 기여를 통해 가족들은 지역사회에 속하며 지역사회에 의해 보존되는 오두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출처: 다음 문헌에서 변경: Turpin Bassama, S., 2010. La case des tout-petits au Sénégal. *Revue Internationale d'éducation de Sèvres*. No. 53-2010, pp. 65-75.

중등교육: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중·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직업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특히 청년 실업 증가, 자격증의 취득 및 재취득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라틴

65 Global Child Development Group. 2011. *Child Development Lancet Series: Executive Summary*. www.globalchilddevelopment.org [2015년 2월 검색].

66 Baron-Cohen, S. 2008. *The Facts: Autism and Asperger Syndrom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일부 국가들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기초교육을 받은 이후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규제에 대한 투자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교육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공적 지원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확대되면서 중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⁶⁷

고등교육: 지난 15년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고등교육에 취학한 학생 수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이르면서 취학률이 2000년 이후 두 배가 되었고, 그 중 절반이 여성이다.⁶⁸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불균등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전 세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취학률이 높은 국가에서조차 소수자들의 취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성장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교육기관의 비중 증대 및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세는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은 여전히 교육받을 기회를 앗아가는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으며, 좋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⁹

67 UN DESA. 2013. *Inequality Matters*. Report of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68 유네스코 통계원 (UIS) 자료임.

69 Altbach, P. G., Reisberg, L. and Rumbley, L. E. 2009. *Trends in Global Higher Education: Tracking an Academic Revolution*. Paris, UNESCO (Report Prepared for the UNESCO 2009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참고 9. 멕시코의 문화간 대학

멕시코 인구의 약 10%는 원주민이지만, 이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가장 낮는데, 멕시코 고등교육 취학 인구의 1-3%만이 원주민이라고 추정된다.

2004년 멕시코 교육부의 문화간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협의회(General Coordination for Intercultural and Bilingual Education)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원주민 기관 및 학술 기관의 적극 참여로 문화간 대학(Intercultural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 대학들은 원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하되 주로 원주민을 입학 대상으로 한다. 이 대학들은 문화간 교육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문화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원주민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요구와 최근의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성의 인정과 더불어 문화간 대학들은 교육 활동에 있어 유연한 접근법을 택했다. 몇 가지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 각 대학들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필요와 잠재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관여하며 그 지역과 사람들,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한다.

12개의 문화간 대학에 현재 약 학생 7천 명이 재학 중이며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재정 문제, 학생들의 생활 여건 및 정치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간 대학은 교육적 형평성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출처: Schmelkes, S. 2009. Intercultural Universities in Mexico: Progress and difficulties. *Intercultural Education*, Vol. 20, No. 1, pp. 5-17. 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4675980802700649 [2015년 2월에 검색].

■ 교육환경의 변혁

오늘날 세계의 교육 환경은 학습방법, 학습내용, 학습공간과 관련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 해당된다. 다양한 지식에 대한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학습기회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은 덜 체계적일지 몰라도 보다 혁신적이며, 교실, 페다고지, 교사의 권한 및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 면에서 현재의 학습환경 변화는 산업화 이전 전통 교육모델이 19세기 공장모델로 역사적 전환을 한 것에 비유된다. 전통적인 산업화 이전 모델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일터에서 배움을 얻었다. 대조적으로,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대중교육모델은 학습과 학교교육을 동일시했다. 실상은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학습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육모델은 계속해서 (거의 전적으로) 학습을 교실수업과 연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로 정의된 물리적 공간을 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수준에서의 형식교육의 핵심적인 특징이다.⁷⁰

학교는 정말 사라질 것인가?

디지털 시대에서 e-러닝, 모바일 학습, 기타 디지털 기술의 혜택 때문에 학교 모델은 이제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탈학교 교육에 대한 학파간 논쟁, 특히 폴 굿맨 (Paul Goodman)⁷¹과 이반 일리치(Ivan Illich)⁷²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대한 산업모델은 한 세기 전에 생산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것이 사실이다. 학습방식은 지난 20년 동안 극적으로 변했고, 지식을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지식의 원천도 바뀌었다. 한편 형식교육체계는 지난 2세기 동안 느리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유사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지만,⁷³ 여전히 학교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교 교육은 가족을

넘어선 제도화된 학습 및 사회화의 첫 걸음이자 **존재하기 위한 교육,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과 같은 사회적 학습의 필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학습은 단순한 개인적 과정일 수 없다. 교육은 사회적 경험이므로 동료 학생들, 교사들과의 토론 및 논의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공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환경 변화는 형식교육 기관 밖에서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부터 다양한 교육기관 및 제3의 제공업체를 통한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 환경으로

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⁷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을 연속체로 바라보는 유연한 접근법이다. 즉, 학교나 형식교육 기관이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얻게 되는 보다 덜 형식화된 경험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 공간, 관계가 변화하면서 학습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기서 학습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형식과 무형식 학습공간이 형식교육 기관과 상호작용하고 형식교육 기관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을 연속체로 바라보는
유연한 접근법이다.
즉, 학교나 형식교육 기관이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얻게 되는
보다 덜 형식화된 경험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70 Frey, T. 2010. The future of education. *FuturistSpeaker*. www.futuristspeaker.com/2007/03/the-future-of-education [2015년 2월 검색].

71 Goodman, P. 1971. *Compulsory Miseducation*. Harmandsworth, UK, Penguin Books.

72 Illich, I. 1973. *Deschooling Society*. Harmandsworth, UK, Penguin Books.

73 Davidson, C.N. and Goldberg, D.T. with Jones, Z.M. 2009. *The Future of Learning Institutions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 MIT Press (MacArthur Foundation Report on Digital media and Learning).

74 Scott, C. 2015. The Futures of Learning. *ERF Working Papers*. Paris, UNESCO.

새로이 생겨나는 학습공간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교실, 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학습공간이 출현하면서 교실 중심의 학습도 흔들리고 있다.⁷⁵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협업 및 공동 저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교실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교실 안팎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교육자료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⁷⁶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컨소시엄이 강의 자료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형식교육·훈련 기관과 다른 교육 경험 간의 시너지가 창출되면서 모든 학습공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실험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 역시 늘어나고 있다.

참고 10. '벽에 뚫린 구멍' 실험

NIIT의 수석 연구원 수가타 미트라(Sugata Mitra) 박사는 '벽에 뚫린 구멍' 실험을 고안하였는데, 1982년 초 그는 감독이 없는 자율학습 및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1999년 미트라 박사팀은 뉴델리의 칼카기에 인접한 빈민가와 NIIT의 경계가 되는 벽에 공간을 만들어 이 공간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했다.

이 컴퓨터는 빈민굴 거주자, 특히 아동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컴퓨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학습자에게 재미있고 동기 부여가 되는 콘텐츠, 최소한의 지침, 적절한 컴퓨터 기기가 함께 제공된다면 아동들은 우연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설을 세웠다.

칼카기에서의 실험 성공에 힘입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가 쉬브푸리(마디아 프라데시 마을)와 마단투시(우타르 프라데시 마을)에도 설치되었다. 이 실험은 '벽에 뚫린 구멍' 실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두 마을에서의 실험결과는 칼카기 실험 결과를 더욱 분명히 해 주었다. 이 두 마을 아이들도 스스로 컴퓨터 기술을 익혔는데, 이 새로운 학습 방법은 최소침습적 교육(Minimally Invasive Education)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에 시작된 이래로 '벽에 뚫린 구멍' 실험은 뉴 델리의 칼카기에 설치했던 컴퓨터 한 대에서 시작하여, 인도 전역과 부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컴퓨터 수백 대로 확대되었다.

역주: NIIT는 인도의 구르가온(Gurgao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다음의 문헌에서 변경: www.hole-in-the-wall.com [2015년 2월 검색]

75 Hannon, V., Patton, A. and Temperley, J. 2011. *Developing an Innovation - Ecosystem for Education*. Indianapolis, CISCO; Taddei, F. 2009. *Training creative and collaborative knowledge-builders: A major challenge for 21st century education*. Report prepared for the OECD on the future of education. Paris, OECD.

76 Grimus, M. and Ebner, M. 2013. M-Learning in Sub Saharan Africa Context- What is it about. *Proceedings of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al Multimedia, Hypermedia and Telecommunications 2013*, pp. 2028-2033. Chesapeake, VA: AACE.

모바일 학습

최근 학습을 위한 모바일 기술 사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바일 학습은 단독으로든 다른 정보 통신기술과 결합해서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⁷ 현재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태블릿 PC, e-리더기,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및 손에 착용하는 콘솔 등과 같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기술의 출현으로 교육적 과정의 본질이 크게 바뀌었다. 휴대전화, 태블릿 PC, 초소형 컴퓨터에 이르는 가볍고 휴대가능한 장치 덕분에 고정적이고 미리 지정된 위치에서 이루어지던 학습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였고 현대 사회에서의 지식의 본질 역시 변화하고 있다.⁷⁸ 따라서 학습은 더욱 무형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어디에나 존재(유비쿼터스)’하게 되었다.⁷⁹ 모바일 기술은 데스크탑 컴퓨터와 비교할 때 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⁸⁰

모바일 학습은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고, 기초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을 연결시켰다.⁸¹ 휴대성과 저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값싼 모바일 학습 장치는 기초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⁸² 모바일 기술은 ‘오늘날의 디지털 격차 양상을 바꾸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열쇠’이다.⁸³ 특히 모바일 기술 개발은 읽고 쓰는 역량과 언어학습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열었다.⁸⁴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기술이 학습자의 문해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모바일 기술은 보다 많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고립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 및 청년에게도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⁸⁵

77 UNESCO. 2013. *Policy Guidelines for mobile learning*. Paris, UNESCO.

78 O'Malley, C., Vavoula, G., Glew, J.P., Taylor, J., Sharples, M. and Lefrere, P. 2003. *MOBlearn WP4 - Guidelines for Learning/Teaching/Tutoring in a Mobile Environment*. www2.le.ac.uk/Members/gv18/gv-publications [2015년 2월 검색].

79 Traxler, J. 2009. Current State of Mobile Learning. M. Alley (ed.), *Mobile Learning: Transforming the Delive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thabasca, AB, Canada, AU Press. pp. 9-24.

80 Kukulska-Hulme, A. 2005. Introduction. J. Traxler and A. Kukulska-Hulme (eds), *Mobile learning - A handbook for educators and trainers*, New York, Routledge, pp. 1-6.

81 Traxler, op. cit.

82 Kim, P.H. 2009. Action Research Approach on Mobile Learning Design for the Underserved. *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Vol. 57, No. 3, pp. 415-435.

83 ITU and UNESCO. 2014. Mobile learning week: A revolution for inclusive and better education. UNESCO website. 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in-focus/articles/mobile-learning-week-a-revolution-for-inclusive-better-education [2015년 2월 검색].

84 Joseph, S., Uther, M. 2006. Mobile language learning with multimedia and multi-modal interfaces. *Proceedings of the fourth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Wireless, Mobile and Ubiquitous Technology in Education (IChIT'06)*, pp. 124-128.

85 Saechao, N. 2012. Harnessing Mobile Learning to Advance Global Literacy. *The Asia Foundation*. <http://asiafoundation.org/in-asia/2012/09/05/harnessing-mobile-learning-to-advance-global-literacy/> [2015년 2월 검색].

참고 11. 파키스탄 소녀들을 위한 모바일 문해 프로젝트

유네스코 모바일 문해 프로젝트(UNESCO Mobile Literacy Project)는 파키스탄의 외딴 지역에서 250명의 소녀들이 면대면으로 문해교육을 받는 환경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지원하였다. 파키스탄에서 문맹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전국 성인 문해율은 남성이 69%이지만 여성은 40%일 뿐이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 습득한 문해 기술은 꾸준히 실습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문해 과정을 마친 후 원격으로 소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면대면 문해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나, 컴퓨터도 없고 안정적인 유선 인터넷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들과 의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강사들은 학생들이 쓰기를 연습하거나 교재의 문장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면 학생들은 문자메시지로 대답을 했다. 모든 활동과 의사소통은 면대면 수업에서 익힌 문해 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실시 전에는 문해 과정을 마친 소녀들 중 28%만이 후속 시험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모바일 지원 이후 소녀들의 60% 이상이 'A'등급을 받았다. 이 초기 성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UNESCO, 2013. *Policy Guidelines for Mobile Learning*. Paris, UNESCO, p. 15.

온라인 공개수업(MOOCs) - 가능성과 한계

온라인 공개수업(MOOCs) 또한 고등교육을 상당 부분 변화시키고 있다. MOOCs는 정부, 교육기관,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⁸⁶ MOOCs가 고등교육 접근성과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지만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며, 폐다고지, 교육의 질 보증, 낮은 이수율, 학습에 대한 인증 및 인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⁸⁷ MOOCs는 본질적으로 자율 학습인데다가 다른 온라인 과정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⁸⁸ 또한 대부분의 MOOCs가 '정보 전송, 컴퓨터 과제 채점 방식

86 Yuan, L. and Powell, S. 2013. *MOOCs and Open Education: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 A White Paper*. Centre for Educational Technology,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http://publications.cetis.ac.uk/2013/667> [2015년 2월 검색].

87 Daniel, J.S. 2012. Making Sense of MOOCs: Musings in a Maze of Myth, Paradox and Possibility. *Journal of Interactive Media in Education*. Vol. 3, No. 18. <http://jime.open.ac.uk/article/view/259> [2015년 2월 검색].

88 Butcher, N. and Hoosen, S. 2014. *A Guide to Quality in Post-Traditional Online Higher Education*. Dallas, TX, Academic Partnerships. www.icde.org/filestore/News/2014_March-April/Guide2.pdf [2015년 2월 검색].

및 동료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낮은 교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⁸⁹ 개인간의 상호작용이나 활발한 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필요에 완전히 부응하기가 어렵다.⁹⁰

마찬가지로 MOOCs는 학생 평가나 인증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교육기관에서 MOOCs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증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MOOCs가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며 양질의 학습으로 보기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⁹¹ 남반구의 경우 MOOCs에 대한 필요가 북반구와 다르고 MOOCs를 이용하는 대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북반구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

참고 12. 전통적 고등교육을 넘어

우리가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18-22세 사이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선형 방식으로 학년이 올라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실과 강사가 정보의 주요 원천이며 캠퍼스가 학습의 중심지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이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기술은 교육 기관보다는 무형식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중략) 마찬가지로 캠퍼스에서도 새로운 원격교육 및 온라인 학습법들이 학생들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

출처: Butcher, N. and Hoosen, S. 2014. A Guide to Quality in Post-Traditional Online Higher Education. Dallas, TX, Academic Partnerships.

전통적 대학모델의 도전 과제

오늘날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연구를 **위한(for)**, 연구를 **통한(through)** 교육이라는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전문적 자력에 대한 전지구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전지구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등교육 기관이 사회에 속하는 방식이 재정적·교육적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 모델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고등교육 환경은 구조와 제도의 다양화, 고등교육 제공의 국제화, MOOCs의 개발, 학습의 질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의 등장, 민간 협력의 성장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전지구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등교육 기관이
사회에 속하는 방식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89 Bates, T. 2012. *What's right and what's wrong about Coursera-style MOOCs?*
www.tonybates.ca/2012/08/05/whats-right-and-whats-wrong-about-coursera-style-moocs [2015년 2월 검색].

90 Daniel, op. cit.

91 Bates, op. cit.

및 인적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교육 거버넌스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통적인 대학 모델의 기반이 되는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순위: 활용과 오용⁹²

대학 순위의 등장은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와 고등교육 기관의 질적 비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 대학 순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계, 학생, 교육서비스 제공자, 정책 결정자, 개발 기관의 비판도 증가하였다. 긍정적 측면은, 대학 순위가 고등교육 기관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고, 관리하기가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교육 공급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하여 대학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순위는 정보의 투명성과 고등교육 기관의 책임성을 장려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대학 순위 평가가 대학의 관심을 교육 및 사회적 책무로부터 순위 결정에 가치를 지닌 특정 과학 연구들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한적인 기준을 전 세계 대학에 적용하고 상위 200개 대학의 특징을 강하게 옹호함으로써, 실제로는 고등교육 기관의 균질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질화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면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순위가 상위 200개의 우수 대학들에게 유리한 요소들 위주로 매겨진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92 Marope, P.T.M., Wells, P.J. and Hazelkorn, E. 2013. *Rankings and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Uses and Misuses*. Paris, UNESCO.

■ 지식사회에서의 교육자 역할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⁹³

**교사는 학습자가
영유아기부터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용가능한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나 정보와 지식의 전달, 확산, 습득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교사는 학습자가 영유아기부터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동안 끊임 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교직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면서 지식이 보다 폭 넓게 보급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수단과 자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교직은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사의 비전문성 뒤집기

교육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새로운 발전 모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교육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주류 담론을 통해 교사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 추세를 보면 북반구와 남반구 교사들의 비전문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교사 수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자격이 없는 교사의 유입, 기간제 교사의 증가, 특히 고등교육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도 증가, 교사의 자율성 감소, 교육 기관 내 민간경영기법의 침투, 교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 간의 보수 격차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⁹³ Haddad, G. 2012. Teaching: A profession with a future. *Worlds of Education*, No. 159.

참고 13. 고도로 훈련되고 존경받는 핀란드 교사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핀란드는 15세 아동 대상 읽기·수학·과학 분야에서 최고를 기록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적이며 존경받는 교사들 덕분이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권위있는 직업이며, 핀란드 사회는 교육과 교사를 신뢰한다.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높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의 후보자만이 엄격한 과정을 통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사는 높은 지적 수준 및 페다고지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자율적이고 사려깊은 학문적 전문가여야 한다.

출처: Niemi, H., Toom, A. and Kallioniemi A. (eds). 2012. *Miracle of Educati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Finnish Schools*. Rotterdam, Sense Publishers.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교사는 학습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통합적이고, 더불어 살며, 환경을 보호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감과 자율성을 심어주며,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학부모, 지역 공동체와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교사는 학교 전체를 위해 다른 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일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관련 자료를 선택하여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습자료와 함께 기술을 학습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교사는 월급이나
경력에서 뿐만 아니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도 매력적인
근무 및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직업으로서의
교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월급이나 경력에서 뿐만 아니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도 매력적인 근무 및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직업으로서의 교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사명과 경력은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도전에 비추어 끊임없이 다르게 제시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가장 전문적인 것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교사 연수과정은 학제간 교류와 접목되어야 한다. 학제간 교류의 본질은 학습자들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존중하며, 인본주의를 향한 창의성과 합리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사와 교수가 이끌어 주는 것이다.

학계 종사자의 해결 과제

학생 수는 급증한 반면 예산은 부족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계 종사자의 지위와 노동 조건이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학계 종사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대학 교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자격을 갖춘 학자는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빨리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학계 종사자의 절반 정도만이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교수진 절반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많은 박사 과정생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적은 보수 때문에 학계 이외의 곳에서 일하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박사들은 너무 적다. 많은 중앙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교수의 80%가 비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학계 종사자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 학술시장이 발달하여 학계 종사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가능해졌다. 더 높은 급여가 이러한 이동의 주된 동기이기는 하나, 보다 나은 연구시설, 승진, 학문의 자유, 더 좋은 근무 환경 등과 같은 동기들도 이들의 국제적 이동의 원인이다. ‘인재 유출(brain drain)’과 ‘인재 순환(brain circulation)’ 현상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며, 이는 고등교육 정책수립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형식교육 밖의 교육자들

마지막으로, 일생에 걸친 학습과 형식교육체계 외에서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필

**일생에 걸친 학습과
형식교육체계 외에서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수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다양한 무형식·비형식 환경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계 연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교육자들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센터, 종교단체, 직업훈련센터, 문해프로그램, 자발적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안녕을 고려하면 이들의 활동 가치는 상당하다.

3. 복잡한 세계에서의 교육 정책개발



3. 복잡한 세계에서의 교육 정책개발

전지구화로 인해 점점 더 국가의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고 정책 개발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은 갈수록 전지구화되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본질적으로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입안자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지구화의 영향을 규제하고 그에 대응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나, 북반구에서도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학습자와 노동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인재 순환(brain circulation)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 역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교육정책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과 고용 간의 커지는 격차

저고용 성장 및 취약성의 증가

경제적 전지구화가 심화되면서 저고용 성장, 청년 실업, 근무 안정성이나 여건이 취약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고용 성장은 최근 유럽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의 청년 세대가 취업을 늦게 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불일치하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⁹⁴ 청년실업이 비록 교육, 훈련, 고용 간의 부조화를 시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책임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개발 담론과 실천이 오랜 기간동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합리화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형식교육과 고용 간의 긴밀한 관계인데, 오늘날의 고용 추세는 이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끔 한다.

94 Blaug, M. 1965.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in Great Britain. *The Manchester School*. Vol. 33.참조.

청년들 사이에서 커지는 좌절감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귀해지면서 전 세계 가정과 청년 졸업생들의 좌절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청년층, 그리고 더 넓게는 노동자 일반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남반구 국가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높아지고 있는 취업 경쟁률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교육 접근성 확대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세대이지만, 형식교육을 받은 후 높아진 성공에 대한 욕구와 저고용이라는 현실 사이의 격차로 고통받고 있다. 보통 교육자격을 갖추면 취업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혜택을 예상하지만, 형식교육을 받은 이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교육이 상향식 사회이동이나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와 국가에서는 환멸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상향식 사회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으나, 이러한 희망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남반구 국가 뿐만 아니라 북반구에서조차도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전통적인 ‘높은 수준’의 교육 루트를 밟으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투자 수익’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⁹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취업을 하기까지의 양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 고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의 전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이유가 구직자의 보유 기술과 노동시장의 수요 간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 기간은 경제적으로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부 청년들에게는 사회참여, 자원봉사, 여행, 여가, 예술 및 기타 활동을 통한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반드시 고용의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시민적·사회적·정치적 참여의 최전방에 설 수 있다.

**교육이
상향식 사회이동이나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와 국가에서는
환멸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 급변하는 고용 환경 간의 연계성에 대한 재고

형식교육 및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간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재교육, 패자부활 프로그램, 산업과의 공고한 파트너십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직업적응역량(career-adaptive competencies)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떠한 직업이 생기고 어떠한 관련 기술이 등장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다양성과 적응성을 아우르는, 급변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조직하고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⁹⁵ Facer, K. 2011. *Learning Futures: Education, Technology and Social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직업적응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⁹⁶ ‘전용성기술 (transferable skills)’, ‘21세기기술’, ‘비인지기술’로서 강조되며,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문해력, 문제해결력, 팀워크 및 기업가 정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14. 청년 고용기회 확대

청년 고용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단합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접근법은 다양한 산업군과 지역에서 볼 수 있다.

18-28세 청년 3명 중 2명이 실업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하람비 청년 고용 촉진센터(Harambee Youth Employment Accelerator)’는 저소득 청년층을 선발하고 그들이 민간부문에서 첫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 이 사업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매업, 호텔 및 관광 업계의 몇몇 대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이에 협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개발은행(Southern African Development Bank)은 하람비 청년 고용 촉진센터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펀드를 설립했다.

코스타리카의 기술회사들 간의 산업협회인 CAMTIC는 IT분야에서 비어있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IT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기관들이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취업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교육, 언어교육, 기술교육이 결합된 자격증 취득 수준의 연수를 고안하였으며, 그 결과 코스타리카 최저 임금의 3-5배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출처: Banerji, A., Lopez, V., McAuliffe, J., Rosen, A., and Salazar-Xirinachs, J.M., with Ahluwalia, P., Habib, M., and Millberg, T. 2014. An ‘E.Y.E.’ to the Future: Enhancing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 2.0: New Targets and Innovative Approaches*. Geneva, World Economic Forum.

96 UNESCO. 2011. *Education and Skill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2015*. Thematic Think Piece for the UN Task Team on the Post-2015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Paris, UNESCO.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교육과 고용 간의 연계는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오늘날의 맥락에서 교육과 훈련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가? 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취업 전망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적절성, 그중에서도 특히 중등교육의 적절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고용창출이며, 이는 견고한 고용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만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데, 이는 교육과 일자리 간의 연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형식교육 및 훈련의 체계 밖에서 이어지는 학습·재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역량은 형식교육을 넘어서는 자체학습, 동료학습, 업무중심학습(인턴십 및 견습 과정 포함), 실무교육 혹은 기술개발 경험 등을 통해 계발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학습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만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모바일 세계에서의 학습 인정 및 검증

변화하고 있는 인구이동의 패턴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모두에서 인간의 이동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⁹⁷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인구 7명 중 1명, 즉 약 10억 명이 '이동 상태'에 놓여있다.⁹⁸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반구에서 남반구로의 이동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⁹⁹ 또한 '경제성장의 지형변화'¹⁰⁰는 고용과 복지에 영향을 주어, 점점 더 많은 북반구 주민이 남반구로 이전하는 현상도 촉진시키고 있다.¹⁰¹ 이러한 이동 양상의 변화는 교육과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재 유출(brain drain)에서 인재 유입(brain gain)으로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세계 노동인구의 대다수는 남반구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세계 노동인구, 혹은 '글로벌 인재풀'의 25%를 인도 한 국가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교육한 노동력 중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는 인재 순환의 양상을 고려하면, 교육과 기술 계발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탈출'로 인해 인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2012년 기준 20억 달러로 추산된다.¹⁰² 반면 인재 유출(brain drain)은 인재 유입(brain gai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국으로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¹⁰³

97 Rio+20, UNCSO. 2012. Mi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io 2012 Issues Briefs*. No. 15, p. 1.

9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World Migration Report 2011. Communicating effectively about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99 UN DESA. 2011. *Urban Populati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United Nations.

100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101 IOM. 2013. Migrant, Well-Being and Development. *World Migration Report 2013*. Geneva, IOM; OECD.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Paris. OECD.

102 Winthrop, R. and Bulloch, G. 2012. *The Talent Paradox: Funding education as a global public good*. Brookings Institution. www.brookings.edu/blogs/up-front/posts/2012/11/06-funding-education-winthrop [2015년 2월 검색].

103 Morgan, W. J., Appleton, S. and Sives, A. 2006. *Teacher mobility, brain drain and educational resources in the Commonwealth*. Educational Paper No. 66. London,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참고 15. 방갈로르 및 하이데라바드의 역(逆) 이주

방갈로르(Bangalore)와 하이데라바드(Hyderabad)는 글로벌 정보기술(IT) 부문에서 틈새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선도 도시이다. 1970-1980년대 인도에서는 인재 유출로 인해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서방, 특히 미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인도인들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 기회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逆) 인재 유출(reverse brain drain)’이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숙련된 노동력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은 물론 방갈로르 및 하이데라바드의 사회·물리적 기반시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와 미국 간 초국가적 연계의 형성과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출처: Chacko, E., 2007. From brain drain to brain gain: reverse migration to Bangalore and Hyderabad, India's globalizing high tech cities. *GeoJournal*, 68 (2), pp. 131-140

노동자 및 학습자의 이동성 증가

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s, NQF)가 개발되었고,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s)의 영향을 받은 지역적 자격체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규모의 증가와 이동 패턴의 변화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유학생 수 역시 21세기에 접어들어 이후 첫 10년 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위·졸업장·전공의 인정에 관한 지역적 협약만으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학생의 이동성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더욱이 학습자의 이동은 형식교육 기관 간의 학생 순환에 국한되지 않고 형식·무형식·비형식 학습 영역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된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은
내용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습득한 지식의
인정, 평가, 검증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대규모 학습평가에 대한 관심 증가: 이점과 위험

전통적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은 내용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습득한 지식의 인정, 평가, 검증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성취도 중심의 국가 및 지역 기반 자격체계 개발에서 나아가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와 같은 성인의 역량에 대한 대규모 평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규모 학습평가의 수와 범위도 크게 증가했다.¹⁰⁴ 이러한 대규모 평가는, 특히 교육제도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의 학업 성취도까지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공공 및 민간에 교육 투자를 하게끔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우려도 있다. 대규모 평가는 시험을 위한 교수 활동을 조장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의 획일화를 유발함으로써 교육의 질, 적절성 및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¹⁰⁵ 또한 교육 정책 역시 성취도라는 좁은 범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쉽다. 특히 대규모 평가가 교사 급여나 학교 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학습 체계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해 습득된 지식과 역량의 인정과 검증은 평생학습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구성한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평생에 걸쳐 그리고 어디에서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새롭지는 않지만 종합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학습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수단으로서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며,¹⁰⁶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한다.¹⁰⁷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고, 정보·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고용 패턴에 대처하고 개인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유형의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평생학습은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¹⁰⁴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¹⁰⁵ 교육과정의 전지구화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할 것: Baker, D. and LeTendre, G.K. 2005. *National Differences,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IBE UNESCO. 2013. *Learning in the post-2015 education and development agenda*. Geneva, IBE UNESCO.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판본이 제공되고 있음.

¹⁰⁶ UNESCO. 2014. *The Muscat Agreement*. Global Education for All Meeting. Muscat, Oman 12-14 May 2014, ED-14/EFA/ME/3 and United Nations.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 General Assembly. 참조.

¹⁰⁷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0. *Annual Report 2009*.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학습 체계의 운영은 교육 및 노동 공간 전반에 걸쳐 어떻게 지식과 역량을 인정하고, 검증하며, 평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 **투명한 성취도기반 자격인정 시스템과의 연계**

이러한 배경 하에 2012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3차 기술직업 교육훈련 국제회의(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는 ‘투명하고 잘 갖춰진 성취도 기반 자격인정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진로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독려하며, 학습한 내용의 축적·인정·전달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 하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평생에 걸쳐
그리고 어디에서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학습 인정을 위한 ‘국제참조기준’을 향하여**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지식·역량 인정을 위한 국제참조 기준(World Reference Levels)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¹⁰⁸

- **고등교육 인정을 위한 국제 협약을 향하여**

유네스코는 고등교육 인정을 위한 지역 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등교육 인정을 위한 국제 협약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 다양하고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시민교육 돌아보기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의 대두

공교육은 사회적·시민적·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정체성, 운명공동체 의식의 생성, 시민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 시민성 개념은 국민국가 내에서 정의되는 정치공동체의 개인 구성원 자격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시민성은, 특히 분열된 사회의 경우,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주자나 난민 등 소수집단에게는 시민성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 시민성은 여전히 국민국가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그 개념과 실천이 변화하고 있다.¹⁰⁹ 초국가적 사회 및 정치공동체, 시민사회, 행동주의

108 Keevy, J. and Chakroun, B. 2015. *The use of level descripto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109 다음 문헌의 내용을 변경함: Tawil, S.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ERF Working Papers*, No. 7. Paris, UNESCO.

(activism)는 새롭게 부상한 ‘탈국가적(post-national)’ 형태의 시민성 개념이 대두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¹¹⁰ 전지구화가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기존 국민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 확인과 동원(identification and mobilization)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교육의 과제

초국가적 형태의 시민성이 출현하면서 시민성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국가는 개인에게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속감을 불러넣는 역할을 한다. 그

**형식교육은
시민적·정치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디지털 미디어가 제시하는
새로운 공간, 관계,
역동성으로 인해
그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성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국가의 역할이 도전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¹¹¹ 새로운 통신 기술과 소셜미디어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의 촉매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을 잘 받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연결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세대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거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새로운 이동·협력·혁신의 수단인 소셜미디어와 기술의 영향을 받아 대안적 형태의 시민적·사회적·정치적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형식교육은 시민적·정치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디지털 미디어가 제시하는 새로운 공간, 관계, 역동성으로 인해 그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및 기타 소셜미디어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과거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두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재고해 볼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적 소비니즘의 거부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언어 및 문화적 소수민족과 원주민까지 포함한다)에 내속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이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주의 증가로 교육제도,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전역에 걸쳐 사회적 결속력을 위협하는 문화적 소비니즘(chauvinism)과 정체성을 빌미로 한 정치적 동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다양성은 풍부함의 원천이지만,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때에는 이러한 문화다양성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기 마련이다.

110 Sassen, S. 2002. Towards Post-national and Denationalized Citizenship. E.F. Isin and B.S. Turner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pp. 277-291.

111 Ibid.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과 연대감 기르기¹¹²

교육은 우리가 계발해야 하는 지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지식에는 첫째, 지역적·국가적·사회문화적·정치적 환경이자 운명공동체로서의 인류 전체에 대한 인식, 둘째,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발견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발전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 셋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시민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포함된다.

• 교육에서의 문화다양성 존중

교육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다양성 증진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과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의 문화적 차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¹¹³

• 포용적 정책 수립 장려

교육정책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교육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 어려움은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역사·지리·사회·종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떠한 언어로 가르칠 것인지,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양성이 발달된 사회에서 건설적인 시민성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포용적인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 교육 및 국가 정책개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교육과 같은 전지구적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규범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가 책임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증가하는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¹¹² Tawil, op.cit.

¹¹³ Sharp, J. and Vally, R. 2009. Unequal cultures? Racial integration at a South African university and Stoczkowski, W. 2009. UNESCO's doctrine of human diversity: a secular soteriology? *Anthropology Today*, 25 (3) June 2009, pp. 3-11.

양상이 관찰된다. 무수히 많은 정부·비정부 행위자들과 영리·비영리 행위자들이 전지구적 수준의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¹¹⁴ 그 결과로서, 권위의 중심이 국가에서 세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에는 정부간 기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재단, 싱크탱크 등이 기여하는 바도 상당하다. 또한,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교육 및 기술 개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보건 등과 같은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더욱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색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교육정책에는 윤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시민적 요소가 서로 다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책무성과 관련 데이터의 필요성

데이터는 거버넌스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국가적·전지구적 차원에서 공교육에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민간 투자가 더해진) 공적 자금이 어떻게 아동, 청년 및 성인의 기초교육을 보장하고, 어떻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학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기초교육 및 훈련이 끝난 후에도 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데이터가 모니터링, 벤치마킹 및 순위도출을 위한 대규모 평가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지표 및 복합지수의 형태로 점차 표준화·정량화되고 있다.¹¹⁵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결과와 교육투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전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된 ‘데이터 혁명’이 요구되고 있다.¹¹⁶ 실제로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모두를 위한 교육을 통한 전지구적 목표 설정의 경험을 토대로 2000년 이후부터 각 국가들에게 자국의 총 국가 데이터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아직 국가 내의 실제 불평등 정도와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형평성(equity)**이 가장 중요하다

114 NORRAG. 2014. Global governance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politics of data scoping workshop report. www.norrag.org/en/event/archive/2014/June/16/detail/scoping-meeting-on-the-global-governance-of-education-16-17-june.html [2015년 2월 검색].

115 Ibid. PISA, PIACC, UIS, OECD 통계, SABER 등이 이에 포함된다.

116 United Nations.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는 견지를 가진다면, 국가적 목표를 보고할 때 한층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성별, 거주지역(도시 또는 시골) 등과 같은 차별의 전통적 원인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나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와 같은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계생활수준이나 보건, 노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같은 대체 데이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육재정의 조달 방식 변화

기초교육과 그 후속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형식교육 및 훈련 체계를 위한 공적 자금이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제한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부여하거나, 재정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 증액,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여자들은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 공공지출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다자간 기구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에 보다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에 대한 다자간 지원은 다른 부문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¹⁷ 몇몇 국가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지원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¹¹⁸ 저소득 국가는 여전히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9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1/4 이상을 국제원조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¹¹⁹ 국경을 초월하는 인재 순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지구적 집단행동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위한 국가들의 공공지출을 보완할 수 있는 제정 조달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¹²⁰

117 Pauline, R. and Steer, L. 2013. *Financing for Global Education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Action: A report prepared for the UN Special Envoy for Global Education for the High-level Roundtable on Learning for All*.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CUE) at Brookings Institution and UNESCO EFA GMR. 이 문헌은 기초교육의 재정 조달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Basic Education at risk). 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reports/2013/09/financing%20global%20education/basic%20education%20financing%20final%20%20webv2.pdf [2015년 2월 검색].

118 Bokova, I. 2014. Opening Speech. *Global Education for All Meeting*. 12-14 May 2014. Muscat, Sultanate of Oman. 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ED/ED_new/pdf/UNESCO-DG.pdf [2015년 2월 검색].

119 UNESCO. 2012. *Youth and skills: Putting education to work*.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Paris, UNESCO, p. 146.

120 Winthrop, R. and Bulloch, G. 2012.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공여자의 영향

공여자는 개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의 조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교육기금(Civil Society Education Fund, CSEF)과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은 시민사회가 지역교육단체연합(Local Education Groups, LEG)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 및 공여자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 달성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다.¹²¹ 그러나 공여자가 원조 제공 시 조건이나 규칙을 부과하면 정부는 공여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공여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공여 기관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이며, 공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¹²² 그러나 공여자에 의한 정책변경은 기존 국가정책과의 상충을 야기할 수도 있고, 국가가 상황에 맞는 적절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여자는 정부, 지역,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가 국가의 희망, 우선순위, 상황, 조건 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 양상의 변화

들로르 보고서의 출판(1996) 및 새천년개발목표의 채택(2000) 이후 국제원조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향하는 원조 흐름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반구-남반구 협력, 또는 삼각 협력이 국제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세력의 출현으로 인해 국제관계가 변화하였고 새로운 국제원조 구조(aid architecture)가 등장하게 되었다. 각국이 실업, 불평등, 기후 변화 등과 같은 공동의 난제에 직면함에 따라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의 필수요소로 보편성과 통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부상하고 있다. 보편성은 모든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경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수반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시각을 갖게끔 한다.

**들로르 보고서의
출판(1996) 및
새천년개발목표의
채택(2000) 이후
국제원조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121 GPE 웹사이트 www.globalpartnership.org/civil-society-education-fund [2015년 2월 검색].

122 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nother Way for Africa*. London, Penguin Books.

(common good)

4. 공동재로서의 교육?



4.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보면,
지식은 궁극적 가치들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아불 칼람 아자드(Abul Kalam Azad), 1947-1958 인도 교육부 장관

새로운 전지구적 맥락에서 교육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이 **조직되는** 방식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즉, 오늘날 교육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이 다각화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교육 거버넌스를 이끄는 원칙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며, 특히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는 **규범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 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 역시 변해야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국가·시장의 맥락에서는 과연 교육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¹²³

■ 흔들리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교육’ 원칙

포용성,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요구 증대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형식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식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권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증대로 인해 공공문제에 발언권 요구와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책무성과 개방성, 형평성과 평등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요구의 대부분이 아직은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초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요구의 내용도 점차 전지구적인 문제를 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적·

123 Morgan, W. J. and White, I. 2014. Education for Global Development: Reconciling society, state, and market. *Weiterbildung*, 1, 2014, pp. 38-41.

국가적·전지구적 수준에서 공공부문을 관리할 때 시민단체나 기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포용적 지식사회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목소리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교과서,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책무성과 개방성,
형평성과 평등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의 증가

전 세계 모든 학교 급에서 교육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립 교육기관 취학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저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의 경우에 사립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이 늘어났다.¹²⁴ 교육 민영화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 자산, 관리, 기능, 책임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및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¹²⁵ 교육의 민영화 추세에 힘입어 학교 유형도 종교 학교, 저렴한 사립 학교, NGO가 운영하는 해외원조 혹은 국제 학교, 차터(Charter) 스쿨, 계약(Contract) 학교, 바우처(Voucher) 학교, 홈스쿨링 및 개인 교습,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¹²⁶ 이러한 민간의 교육 참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규모(scale)나 참여의 범위(scope),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에 민간이 침투(penetration)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¹²⁷

교육 민영화가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교육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일부 사회집단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며, 교육과정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된 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규제가 부실하면 무면허 학교 설립, 미숙련 교사 채용, 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장치 결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외 집단의 경우 교육 민영화의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하는 반면

¹²⁴ UIS database. Time period: 2000-2011.

¹²⁵ 다음 문헌의 내용을 변경함: Right to Education Project. 2014. *Privatisation of Education: Global Trends of Human Rights Impacts*. London, Right to Education Project.

¹²⁶ Patrinos, H.A. et al. 2009. *The Role and Impac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Educ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Lewis L., and Patrinos H.A. 2012. *Impact Evalu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London, CfBT Education Trust. Right to Education Project. 2014. *Privatisation of Education: Global Trends of Human Rights Impacts*. London, Right to Education Project.

¹²⁷ Macpherson, I., Robertson, S. and Walford, G. 2014. *Education, Privatization and Social Justice: case studies from Africa, South Asia and South East Asia*. Oxford, Symposium Books.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이들에게도 부과되는' 문제가 야기된다.¹²⁸ 나아가 민간 교육 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육 민영화의 한 단면으로 보조적인 개인 교습 즉, '그림자 교육'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²⁹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개인 교습이 증가하기 쉬운데,¹³⁰ 이러한 개인 교습은 다른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은 학습 속도가 느린 학습자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학교 급여 이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이 개인 교습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특히 가난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것이 큰 비용이므로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사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¹³¹ 그림자 교육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개인과 가정의 재정 지출, 그리고 교사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육 민영화에 대한 규제를 하는 국가들도 있다.¹³²

참고 16. 이집트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개인 교습¹³³

이집트에서는 사교육비가 가계 교육비 지출 가운데에서 농촌의 경우 평균 47%, 도시의 경우 평균 40%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하다. 보고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24억 달러로, 2011년 이집트 정부 교육 지출의 27%에 해당한다.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이러한 사교육비를 금전적 부담을 질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로 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확률은 보통의 두 배

128 The Right to Education Project. 2014. op. cit.

129 Bray, M. 2009. *Confronting the shadow education system. What government policies for what private tutoring?* Paris, UNESCO-IIEP.

130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131 Bray, M. and Kuo, O. 2014. Regulating Private Tutoring for Public Good. Policy op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in Asia. *CERC Monograph Serie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No. 10. Hong Kong,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er and UNESCO Bangkok Office.

132 Ibid.

133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다음의 출처에 기초하고 있음: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2013); Elbadawy et al. (2007); Hartmann (2007); UNESCO (2012a).]

에 이른다. 한 편, 교사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교실보다는 개인 교습에 투입하기 때문에 형식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결국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사교육이 만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집트 내 공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집트 정부가 자격 미달의 교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수 십 년 동안 이집트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할 수 없이 교사가 되는 졸업생들이 많고 사회에서 교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은 정부 일자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교사들은 부족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사교육에 발을 담고 있다.

출처: UNESCO.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2014. Paris, UNESCO.

민영화로 인해 학습기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나아가 악화될 것이 점쳐지는 상황은 교육이 공공재라는 원칙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재맥락화

국제적 개발 담론은 대부분 교육을 인권이자 공공재로 본다. 교육이 다른 인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는 원칙은 국제적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¹³⁴ 이러한 원칙은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하며, 보호하는 역할이 국가에게 주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영화로 인해
학습기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나아가 악화될 것이
점쳐지는 상황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참고 17. 교육받을 권리의 존중, 이행, 보호

46.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게 세 가지 유형의 의무, 즉 그 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하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권리를 이행할 할 의무는 권리를 촉진할 의무와 권리를 제공할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47.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받을 권리를 이행(촉진)할 의무는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교육받을 권리를 이행(제공)할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¹³⁴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26조),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3조), 1989년 아동권리협약 (28조) 참조.

스스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때 규약상의 구체적인 권리를 이행(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의 범위는 항상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출처: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1999.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Art. 13 of the Covenant)*, 8 December 1999, E/C.12/1999/10 (46/47), available at: www.refworld.org/docid/4538838c22.html [2015년 3월 6일 검색]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최근까지도 학교교육,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1990년 태국 종티엔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에서 채택한 기초교육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이에 따르면 기초 교육은 문해력, 수리력과 같은 기초 학습 도구와,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기술·가치로 구성된다. 한편 형식교육의 관점에서 기초교육은 종종 의무교육과 동일시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교교육 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는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원칙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이러한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원칙은 기초교육의 수준에서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의 보다 높은 교육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없다.¹³⁵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수요도 증가하였고, 직업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자격의 취득 및 재취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직업기술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이 기초교육 수료 후의 학습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라는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이의 자격과 의무를 지는 자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의무)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의 교육(고등학교 교육, 고등교육,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기술교육 등)에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기초 교육 수료 후 단계의 교육과 연수를 제공함에 있어 공평한 기회 및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책임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호해진 공공과 민간 간의 경계

교육은 국제적 교육 담론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로 간주된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유엔 특

¹³⁵ Morgan, W. J. and White, I. 2014.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public or private good? *Weiterbildung*, 6, 2014, pp. 38-41.

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관념을 장려하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³⁶ 그러나 교육에 들어가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비국가 행위자들도 교육 부문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시민 단체, 기업, 재단 등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재원이 다양해지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공공정책(public policy) 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상하는 등 학습의 새로운 전지구적 맥락 하에서 ‘공공’이라는 개념은 더이상 명확하지 않다.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 기관이 점점 더 민간 재원에 의존하고,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이 함께 성장하며, 고등교육 기관의 운영에 경영학적 방식이 도입되는 현실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초교육과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이 점점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사적 관심에 따라 교육의제가 설정된다. 이처럼 교육에 민간의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공공재에서 사유재(private good) 또는 소비재(consumer good)로 변화하고 있다.¹³⁷ 또한 사회, 국가, 시장 간의 관계가 급변하면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을 둘러싼 새로운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교육이 공공재라는 핵심 원칙은 과연 보호될 수 있는가?

새로운 전지구적 맥락에서
교육이 공공재라는
핵심 원칙은
과연 보호될 수 있는가?

■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s)로서 교육과 지식

공공재 이론의 한계

공공재 이론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¹³⁸ 1950년대에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재화로서, 한 개인이 이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로 정의되었다.¹³⁹ 교육에 경제적 개념을 도입하면 항상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 공공재라고 하면 흔히 공공정책이나 정부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여

136 Singh, K. 201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United Nations. A/69/402, 24 September 2014.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69/402 [2015년 2월 검색].

137 Macpherson, Robertson and Walford, op.cit., p. 9.

138 Menashy, F. 2009. Education as a global public good: the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s of a framework.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Vol. 7, No. 3, pp. 307-320.

139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6, No. 4, pp. 387-389.

겨진다. **공공**(public, 公共)이라는 용어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오해가 바로 ‘공공재’는 정부 등 **공공 부문**(the public)이 제공하는 재화라는 것이다.¹⁴⁰ 반면 **공동재**(common goods, 共同財)는 그 공급자가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또 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의미한다.¹⁴¹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동재’ 개념은 공공재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재는 ‘가치, 정의감, 시민으로서의 미덕 등과 같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공유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¹⁴² 공동재는 개인적 산물의 총합을 상회하는 공동체의 연대적 집합체이다. 즉, 공동재는 인간이 공동체로서 존재하면 얻게 되는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상호관계 안에서, 그리고 상호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재가 창출된다.¹⁴³ 결국 공동재는 집단적 공동행동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재는 본질적으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혜택 역시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이다.¹⁴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동재 개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공공재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1. 공동재 관념은 인간의 안녕을 개인주의적 사회경제 이론의 틀에 맞추어 규정하는 도구주의적 공공재 개념*을 넘어선다. 공동재의 관점에서는 ‘좋은 삶(good life)’, 즉 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선으로서의 요소(goodness of the life)’도 중요하다.¹⁴⁵ 따라서 공동재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재화일 수 없다.¹⁴⁶ 최근 국제적 담론에서 논의의 중심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공동행동으로서의 교육의 목적과 집단적 차원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보다 큰 사회적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계획할 때에도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이 공

**공동재 관념은
인간의 안녕을
개인주의적
사회경제 이론의
틀에 맞추어 규정하는
도구주의적 공공재
개념을 넘어선다.**

140 Zhang, E. 2010. *Community, the Common Good, and Public Healthcare - Confucianism and its relevance to contemporary China*. Department of Religion and Philosophy,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141 Marella, M.R. 2012. *Oltre il pubblico e il privato: per un diritto dei beni comuni*. Verona, Ombre Corte.

142 Deneulin, S., and Townsend, N. 2007. Public Goods, Global Public Goods and the Common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34 (1-2), pp. 19-36.

143 Cahill cited in: Deneulin and Townsend, ibid.

144 다음 문헌의 내용을 변경함: Deneulin and Townsend, ibid.

145 Deneulin and Townsend, ibid.

146 Holster, K. 2003. The Common Good and Public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53(3), 347-361.

* 역주: 공공재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임.

공동체라는 개념은 함께 책임을 지고 연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공동행동’으로서의 교육을 이야기함으로써, 교육의 집단적 차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 공동체를 정의할 때에는 인간의 안녕이나 공동체로서의 삶과 같은 개념들이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은 공동체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¹⁴⁷ 공동체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정책은 인간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맥락적 다양성, 세계관의 다양성, 지식 체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¹⁴⁸
3. 공동체 개념은 **참여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참여적인 프로세스는 그 자체로 공동체이다.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 행동은 공동체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속되는 것인 동시에 수단이기도 하며, 공동 행동을 하는 과정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혜택도 있다.¹⁴⁹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교육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과정을 거쳐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체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와 제도를 가슴에 품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운영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민영화 정책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¹⁵⁰

전지구적 공동체로서의 교육과 지식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시 그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의도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기준에 따라 지식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이러한 의도적이고 조직된 학습 과정으로 간주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지식 습득(및 검증) 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즉, 지식을 습득하고 검증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 일반에게 개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147 Zhang, op.cit.

148 Deneulin, and Townsend, op.cit.

149 다음 문헌의 내용을 변경함: Deneulin and Townsend, ibid.

150 Marella, op. cit.

참고 18. 지식의 창출, 통제, 습득, 검증 및 활용

지식은 정보, 이해, 기술,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역량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또는 학습)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역량)을 개발하는 의도적인 과정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습득한 지식의 검증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과 학습에 관한 논의는 지식 습득, 검증 및 활용의 과정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식의 **창출**과 **통제**도 다루어야 한다.

출처: 저자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따라서 지식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로 인식해야 한다. 지식을 전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만 간주한다면¹⁵¹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간과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다.¹⁵² 오늘날 지식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여 그 지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증가하는 추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유된 지식 자산(knowledge commons)은 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 생산을 통제하는 지적재산관 제도를 통해 점차 사유화되고 있다.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 점진적인 사유화 추세는 대학이나 연구소, 컨설팅 회사, 그리고 출판 업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공재라고 믿는 공유된 지식 자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생태

151 Kaul, I., le Goulven, K. et al. (eds) 1999.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2 Stiglitz, J. 1999. Knowledge as a global public good. In Kaul, I., le Goulven K. et al. (eds), *ibid.*, pp. 308-325. 다음 문헌도 참조할 것: UNDP. 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학적 의약적 지식을 글로벌 기업들이 도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토착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러한 저항의 일환으로 리눅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자가 제품 원본을 자유롭게 실행, 복사, 배포, 연구, 수정, 개선할 수 있는 공유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¹⁵³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과 지식은 전지구적 공동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collective social endeavour)으로서 지식을 창출하여 통제하고, 습득하며, 검증하고, 활용하는 활동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다. 교육 거버넌스는 더 이상 지식 거버넌스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교육과 지식은
전지구적 공동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
(collective social endeavour)
으로서 지식을 창출하여
통제하고, 습득하며,
검증하고, 활용하는
활동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다.

기본 원칙의 수호

한편 우리는 현재의 국제적 교육 담론이 세계 및 국가의 교육정책과 그 실행을 이끌어온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학습**이라는 용어로 불리우는 오늘날의 국제적 교육 담론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결과**에 중점을 둬으로써 학습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본질적으로 가장 쉽게 **측정할**(measured)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인 **학습성취도**(learning achievement)에만 주목하게 된다.¹⁵⁴ 따라서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지식, 기술, 가치, 등의 광범위한 학습 결과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습을 기술 습득을 위한 **개인적** 과정으로 봄으로써,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으로서의 교육의 목표와 학습 기회 의 조직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담론은 **공동재**로서의 교육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공동재 규제의 역할과 책임

‘인류애에 뿌리를 둔 연대와 사회정의’라는 가치에 영감을 받아, 지식과 교육이 전지구적 공동재라는 원칙은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함의를 던진다.

¹⁵³ www.linuxfoundation.org [2015년 2월 검색].

¹⁵⁴ ‘학습성취도(learning achievement)는 개인이 습득한 실제 기술, 태도, 가치, 지식 수준을 지칭하며 이는 학습이 일어났음을 측정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1990. *Meeting Basic Learning Needs: A vision for the 1990s. Background Documents*. New York, Inter-Agency Commission for the WCEFA.

• 시민사회 및 다른 파트너들의 역할 강화

오늘날의 교육적 맥락에서는 시민 사회가 보다 의미있고 명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이 상품화 되어 가는 현재 추세는 지역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저지되어야 한다. 교육이 지닌 여러 기능을 고려하면 교육은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즉, 바람직한 교육 거버넌스란 다양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가 교육정책은 광범위한 사회적 협의와 국가적 합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기업이나 재단이 개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국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 시민 등 모든 개발 파트너들이 다른 파트너들의 전문 지식, 역량,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육과 같이 전통적으로 공공재로 간주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들도 많이 있다.

민간기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당장의 고용 수요를 넘어서는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매출액의 2%를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사회적·교육적 필요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 자원 마련을 위해 해당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이 필요할 수 있다.

• 공동재 규제를 위한 국가 역할 강화

오늘날의 경제적 전지구화와 시장 자유화의 맥락에서 국가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공동재에 대한 접근과 규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교육은 기회 균등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적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무가 있다.

1. 공교육을 개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기회 균등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적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2. 민간 부문의 교육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한다. 모니터링은 결코 행정적이거나 관료적이어서는 안되고, 감시활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모니터링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전문가들이 채택한 표준과 국제적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 전지구적 공동재 규제를 위한 정부간 기구의 역할 강화

국제 사회는 전지구적 공동재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책과 실행에 있어 바람직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은 유엔 및 다른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주요 과제이다. 유엔 기구들은 기술적 기능 외에도 지식, 교육, 유·무형 문화 유산과 같은 전지구적 공동재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끌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과 교육과 관련한 규범적 논의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⁵⁵

■ 미래를 위한 제언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본서의 논의는 전지구적 사회변화의 동향, 긴장관계와 역설, 그리고 새로운 지식지평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인류의 보다 나은 삶, 세계관 및 지식 체계의 다양성,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안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건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윤리·도덕적 토대에 기반을 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불평등의 단순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공정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교육의 과정을 지향한다. 무분별한 순응 대신 비판적 사고력과 주체적 판단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책은 복잡한 세계에서의 교육정책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첫째, 형식교육과 고용 간의 격차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국경, 직업, 학습공간을 넘나드는 이동성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학습을 어떻게 인정하고 검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셋째, 다원성에 대한 존중과 인류 보편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의 복잡성과 잠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고려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싼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또한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들, 특히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원칙에 대한 재맥락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지식에 대해, 그리고 지식의 창출, 습득, 검증, 활용 방식에 대해 교육정책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서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으로서의 학습’의 목표와, 그러한 학습을 조직하는 과정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지식을 전지구적 공동재로 간주하는 접근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들,
특히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원칙에 대한
재맥락화가 필요하다.

¹⁵⁵ Bray, M. and Kwo, O. 2014. Regulating Private Tutoring for Public Good Policy Op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in Asia. *CERC Monograph Serie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No. 10.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Hong Kong.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학습의 네 기둥인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지구화와 경제성 정치의 부활로 인해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네 기둥을 다시 강화하고 일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육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달성’이라는 과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교육정책이나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세계관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교육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지구화는 어떠한 위협과 기회를 제시하는가?

교육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는 교사를 위한 교육·연수·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사유재, 공공재, 전지구적 공동재 개념 간의 구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구로서 국제 개발 동향과 학습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하는 ‘아이디어 실험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유네스코의 교육적 사명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지침이 되는
규범적 원칙들을
마련해야 한다.**

에도 부합하고, 지적 기구 및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¹⁵⁶ 정책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지침이 되는 규범적 원칙들을 마련해야 한다.

유네스코가 국가위원회, 유네스코 체어 프로그램(UNESCO Chairs) 및 전문 기관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예외적 유엔 기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상황 및 수요의 변

화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재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동향과 교육에의 함의를 검토하고 보고하는 상시적인 관측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156 Elfert, M. 2015. UNESCO, the Faure Report, the Delors Report, and the Political Utopia of Lifelong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50, No. 1, pp. 88-100.

인류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발전은 이 상향과 반이상향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인류가 해방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21세기의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류 공동의 안녕이라는 목적 하에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글로벌 아이디어 실험실로서의 유네스코의 기본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우리는 변화, 복잡성, 역설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 경제성장과 부의 증대로 인해 세계의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취약성, 불평등, 소외와 폭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생산과 소비는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자연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인권에 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관련 규범의 이행과 보장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이 상호연결성을 증대시키고 교류·협력·연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종교적 편협성과 정체성을 빌미로 한 정치불안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전지구적 학습환경이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이 출판물은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과 발전에 대한 인본주의적 비전이 이 책에 영감을 주었으며, 인본주의적 비전은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 평등한 권리 및 사회정의에 대한 존중,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연대와 공동책임과 같은 인류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책은 복잡한 세계에서 집단적 사회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학습목표와 학습조직 간의 조화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식을 전지구적 공동재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